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아시아 재정브리프

Vol.3 No.1 2025년 가을

2025. 10

## 연구진

연구책임: 허경선 아태재정협력센터장

연구진: 최승훈 아태재정협력센터 펠로우팀장

이재영 아태재정협력센터 펠로우팀 선임연구원

김윤지 아태재정협력센터 펠로우팀 선임연구원

김의주 아태재정협력센터 펠로우팀 선임연구원

박도현 아태재정협력센터 펠로우팀 연구원

김난유 아태재정협력센터 펠로우팀 연구원

오한울 아태재정협력센터 펠로우팀 연구원

신민규 아태재정협력센터 펠로우팀 위촉연구원

### 일러두기

- 본 보고서는 아시아·태평양 재정관리협력체(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Networks in Asia, PEMNA)에 속하는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25~2026년 예산안과 경제·재정 전망 및 이슈를 다루고 있음
- ‘주요국 재정당국 동향’ 및 ‘주요국 2025~2026년도 예산안’의 경우, 원문 자료를 인용하였기 때문에 번역상 오류가 있을 수 있음

<b>I</b>	<b>아시아 지역 경제·재정동향 및 정책이슈</b>	<b>3</b>
	1. 경제전망	4
	2. 재정지표	7
	3. 아시아 지역 재정정책 이슈: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속 재정정책	12
	4. 아시아 지역 재정정책 이슈: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17
<b>II</b>	<b>아시아 주요국 재정동향 및 정책이슈</b>	<b>21</b>
	1. 주요국 재정당국 동향	22
	2. 아시아 주요국 재정정책 이슈: 베트남 재무부 구조조정	27
	3. 아시아 주요국 재정정책 이슈: 몽골 세제개편안 의회 제출	29
	4. 아시아 주요국 재정정책 이슈: 태국 경기부양 예산 편성	31
	5. 아시아 주요국 재정정책 이슈: 필리핀 신정부조달법	33
	6. 아시아 주요국 재정정책 이슈: 말레이시아 세제 개편	35
<b>III</b>	<b>주요국 2025~2026년도 예산안</b>	<b>37</b>
	1. 태국	38
	2. 브루나이	44
<b>IV</b>	<b>국제기구 연구동향</b>	<b>47</b>
	1. 아시아 지역 대상 국제기구 발간물	48
	2. 아시아 국가 대상 국제기구 발간물	51
	<b>참고자료</b>	<b>65</b>



## 아태재정협력센터 소개

### □ 아태재정협력센터(Center for Asia-Pacific Fiscal Affairs, CAPFA) 소개

- 아태재정협력센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재정제도 및 재정관리에 관한 연구 및 재정정책 지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3년 2월 1일에 설립되었음
- 아태재정협력센터의 주요 업무는 ▲ 아태지역 재정정책 연구 ▲ PEMNA 사무국 운영 ▲ 국내외 기관 연구협력으로 구분될 수 있음

### □ 아태지역 재정정책 연구

- 아태지역의 재정정책, 재정제도, 재정관리, 국고회계 등 각 분야의 동향 파악 및 연구 기능을 수행함

### □ PEMNA 사무국 운영

- PEMNA(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Network in Asia)는 아태지역 국가들로 구성된 재정협력체로, 재정제도·재정정책·재정개혁에 대한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회원국의 해당 분야 공무원들 및 전문가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공공재정 관리 역량 배양을 목적으로 함
- 아태재정협력센터는 국제적 재정협력 및 공조를 위해 PEMNA 사무국 역할을 수행함
- 현재 PEMNA 회원국은 총 14개국으로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으로 구성됨

### □ 국내외 기관 연구협력

- 국제행사 및 연구를 통해 세계은행, OECD, ADB, IMF 등 국내외 재정분야 전문가들 간의 협력 및 교류를 강화하고 있음

## 머리말

- 아시아 재정브리프 2025년 가을호는 아태재정협력센터가 발간한 『아태지역의 재정제도 및 재정정책 현황』 시리즈에 더해 2025년 상반기 최신 동향을 반영하고자 발간됨
  - 특히 이번 호에서는 역내 주요 이슈로, 2025년 상반기 글로벌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미국의 관세정책이 아시아 지역의 재정환경에 미친 변화를 조명함
    - 관세 인상은 글로벌 공급망에 부담을 주고, 무역 및 투자 흐름을 위축시켜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및 재정 전반에 광범위한 불확실성을 초래함
  - 또한 올해 5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의 주요 논의도 다루었음
  - ASEAN+3는 보호무역주의에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며, 다자간 자유무역과 역내 경제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함
- 아울러 본 보고서를 발간한 아태재정협력센터는 PEMNA 사무국으로서 14개 PEMNA 회원국의 공공재정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자 함
  - PEMNA 회원국들마다 경제 및 재정제도의 수준은 상이하나, 공통적으로 정부수입 강화, 지출 효율화,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공통과제를 안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1장 ‘**아시아 지역 경제·재정동향 및 정책이슈**’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경제·재정 현황을 간략히 소개하고, 재정정책 관련 주요 이슈로 글로벌 경제 불안정성과 2025년 5월 개최된 제28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내용을 다룸
  - 제2장 ‘**아시아 주요국 재정동향 및 정책이슈**’에서는 PEMNA 회원국의 재정당국 동향을 정리하고, 국가별 재정정책 이슈를 다루었음
  - 제3장 ‘**주요국 2025~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아태지역의 재정제도 및 재정정책 현황』 시리즈에서 다루지 못했던 태국과 브루나이의 2025~2026년도 예산안을 새롭게 분석함
  - 제4장 ‘**국제기구 연구동향**’에서는 국제기구 및 주요 싱크탱크가 최근 발간한 아시아 지역 및 회원국 대상 연구보고서를 소개함

# I

## 아시아 지역 경제·재정동향 및 정책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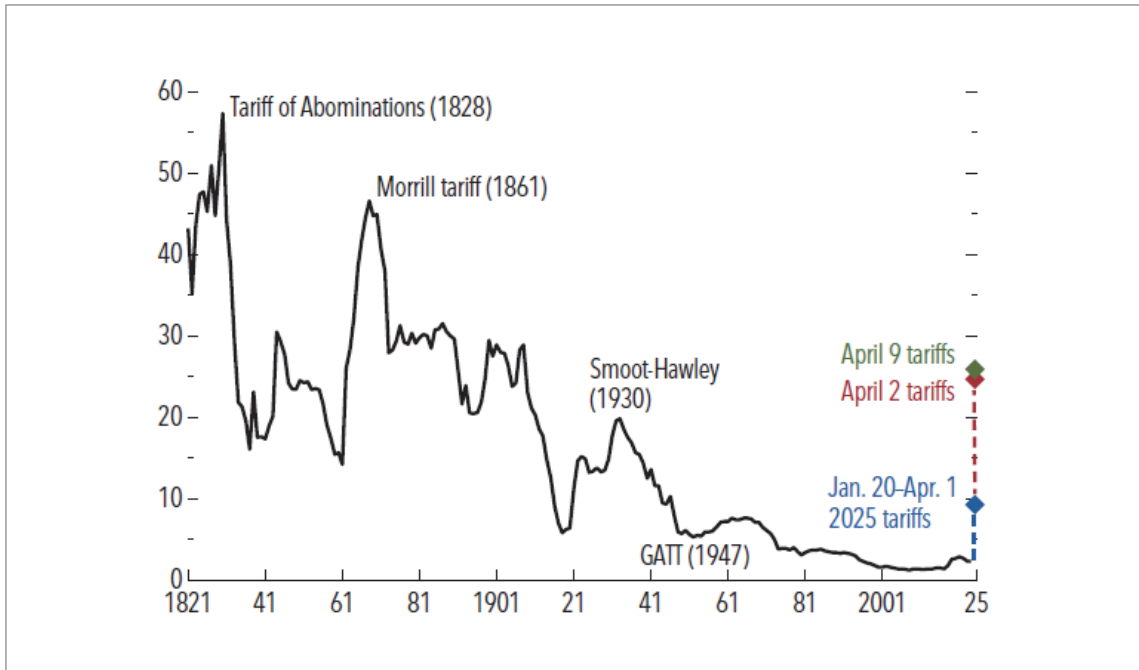
1. 경제전망
2. 재정지표
3. 아시아 지역 재정정책 이슈: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속 재정정책
4. 아시아 지역 재정정책 이슈: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 1 | 경제전망

## □ 글로벌 경제전망

- 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제는 미국과 유럽의 매우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회복세를 보였으나 2024년 성장률은 예상보다 낮았음<sup>1)</sup>
- 2025년 역시 2024년과 유사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미국의 관세정책과 그에 따른 주요 경제대국들의 대응책에 따라 관세 수준은 1930년 이후 최고점을 기록하였음
  - 이에 따라 글로벌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

그림 I-1 미국의 전체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 수준



자료: IMF(2025b) p. xv.

1) IMF는 2024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4월에 3.2%로 예상하였으나, 실제로 2.8% 성장하였다고 추산 중. IMF(2025b), p. 13.

- 높은 관세는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sup>2)</sup>
  - 높아진 관세 수준은 부정적인 공급충격을 야기하여 중기적으로 물가상승 및 생산성 저하로 이어짐
  - 관세 인상은 또한 금융시장에서의 변동성 상승과 더불어 차입비용 상승을 초래해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IMF는 당초 2025년 1월 세계 경제성장률을 3.3%로 예상하였으나, 4월 2.8%로 하향 조정하였음<sup>3)</sup>
  - 이는 2000~2019년 동안 평균 세계 성장률이 3.7%였던 것과 대비됨

□ 아시아 지역 경제전망

- 2025년 4월 세계은행은 아태지역의 경제성장률을 4.0%,<sup>4)</sup> IMF는 4.6%<sup>5)</sup>로 예상하였음
- 중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인해 중국, 일본 한국을 포함한 경제선진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캄보디아 등 개발도상국도 크게 영향을 받아 아태지역의 공급 사슬망 및 수출 수요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아태지역 전반에 나타나는 고령화, 기후변화, 탈세계화(Deglobalization) 등이 구조적인 제약으로 영향을 끼칠 전망<sup>6)</sup>

표 I-1 경제성장률(2019~2025년)

(단위: %)

국가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 세계	2.9	-2.7	6.6	3.6	3.5	3.3	2.8
브루나이	3.9	1.1	-1.6	-1.6	1.4	3.9	2.5
캄보디아	7.9	-3.6	3.1	5.1	5.0	6.0	4.0
중국	6.1	2.3	8.6	3.1	5.4	5.0	4.0
인도네시아	5.0	-2.1	3.7	5.3	5.0	5.0	4.7
한국	2.3	-0.7	4.6	2.7	1.4	2.0	1.0
라오스	4.7	-0.4	2.1	2.3	3.7	4.3	2.5
말레이시아	4.4	-5.5	3.3	8.9	3.6	5.1	4.1

2) IMF(2025b), p. 11.; IMF(2025a), p. 5.

3) IMF(2025b), p. 11.

4) The World Bank(2025a), p. 1.

5) IMF(2025b), p. 42.

6) The World Bank(2025a), pp. 67~68.

표 I-1 의 계속

(단위: %)

국가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몽골	5.6	-4.6	1.6	5.0	7.4	4.9	6.0
미얀마	6.6	-9.0	-12.0	4.0	1.0	-1.1	1.9
필리핀	6.1	-9.5	5.7	7.6	5.5	5.7	5.5
싱가포르	1.3	-3.8	9.8	4.1	1.8	4.4	2.0
태국	2.1	-6.1	1.5	2.6	2.0	2.5	1.8
동티모르	2.7	-8.5	3.0	4.0	2.4	4.1	3.4
베트남	7.4	2.9	2.6	8.5	5.1	7.1	5.2

주: 예상치는 기울임으로 표기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weo-database/2025/april>, 검색  
일자: 2025. 6. 16.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 2 | 재정지표

- (정부수입) 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에 힘입어 2024년 정부수입이 증가하였으나, 팬데믹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sup>7)</sup>
  - 이는 아시아 국가들의 조세부양성<sup>8)</sup>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고, 팬데믹 기간 도입된 감세 조치들이 아직 완전 철회되지 않았기 때문임
  - 경제선진국에서는 GDP에서 소득세의 비율이 높아지고 소비세는 감소한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대체로 소득세 혹은 소비세 모두 대부분 감소하였음<sup>9)</sup>
  - 공공재정에 대한 압박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국가마다 조세정책 및 행정을 강화하여 재정여력 및 완충재를 회복하고 재정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됨
    - 이를 위해서는 국내재원조달(Domestic Revenue Mobilization, DRM) 강화가 필수적임
    - 특히 ASEAN 국가들은 고용 및 기업 활동의 비공식 부문 규모가 큰 만큼, 이를 정식 세원으로 편입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요구됨

7) AMRO(2025), p. 3.

8) 조세부양성(Tax Buoyancy): 세수가 경제성장 혹은 국민소득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여 증가하는 정도

9) AMRO(2025), p. 23.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이 소득세 및 소비세 부분에서 감소를 경험함.

표 I-2 GDP 대비 정부수입(2019~2025년)

(단위: %)

국가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브루나이	28.7	17.5	21.1	28.9	18.5	19.6	19.7
캄보디아	19.8	17.8	15.8	18.1	15.9	14.6	14.7
중국	27.6	25.3	26.0	25.3	26.0	25.6	25.1
인도네시아	14.3	12.4	13.7	15.0	15.1	14.6	14.1
한국	21.6	21.6	24.1	25.2	22.5	22.2	22.9
라오스	15.4	13.0	15.0	14.8	16.5	18.0	17.5
말레이시아	21.6	20.1	18.4	20.1	21.0	19.9	19.7
몽골	31.8	27.9	32.8	34.4	34.6	39.2	37.6
미얀마	15.8	14.6	18.0	18.5	16.0	15.2	16.2
필리핀	20.2	20.4	21.0	20.4	20.3	21.1	20.2
싱가포르	17.8	17.4	16.7	16.2	18.3	18.9	19.7
태국	21.0	20.4	20.0	20.0	20.9	21.4	20.9
동티모르	43.2	42.1	24.6	28.5	44.1	46.0	45.5
베트남	19.4	18.4	18.7	18.9	16.9	18.4	18.7

주: 일반정부 기준이며 예상치는 기울임으로 표기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weo-database/2025/april>, 검색 일자: 2025. 6. 16.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정부지출) 아시아 내 많은 국가들의 정부지출 수준은 팬데믹 이전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sup>10)</sup>

- 팬데믹 기간 동안의 확장적 정부지출로 인해 부채상환 부담이 증가함
- 경제개발, 부채상환 부담, 고령화, 기존 공공부문 지출 등으로 인해 대부분 국가들의 정부지출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예정
  - 이러한 높은 정부지출은 재정여력에 있어 구축효과(Crowding-out)를 야기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 회복이 필수적임

10) AMRO(2025), p. 3.

표 I-3 GDP 대비 정부지출(2019~2025년)

(단위: %)

국가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브루나이	32.4	33.2	29.3	26.4	29.4	29.8	30.0
캄보디아	17.6	20.3	21.0	18.4	18.7	17.7	17.9
중국	33.6	34.8	31.9	32.6	32.7	32.9	33.7
인도네시아	16.4	18.4	18.1	17.3	17.0	16.9	16.7
한국	21.3	23.7	24.1	26.7	23.2	22.8	23.3
라오스	18.6	18.4	15.7	14.7	16.5	15.7	18.4
말레이시아	23.6	25.0	24.5	24.7	24.9	23.9	23.1
몽골	30.8	37.1	35.9	33.7	31.9	37.8	36.6
미얀마	20.5	21.2	20.6	21.2	21.2	20.6	21.9
필리핀	21.7	25.9	27.2	25.9	24.7	25.1	24.1
싱가포르	14.0	24.1	15.6	15.0	14.8	14.5	16.7
태국	20.6	24.9	26.8	24.7	22.8	22.7	24.0
동티모르	68.7	61.0	44.8	60.2	81.4	90.3	96.6
베트남	19.8	21.3	20.1	18.2	19.3	20.0	22.0

주: 일반정부 기준이며 예상치는 기울임으로 표기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weo-database/2025/april>, 검색 일자: 2025. 6. 16.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4 PEMNA 회원국 정부지출 기조

		2025년		
		확장	중립	긴축
2024년	확장	브루나이, 중국, 미얀마, 동티모르 <sup>1)</sup>	인도네시아	-
	중립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한국
	긴축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

주: 1) 동티모르는 저자 추가

자료: AMRO(2025), p. 7.

□ (재정수지)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대부분 재정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만성적인 재정적자는 예상보다 낮은 정부수입 및 지속적인 정부지출의 압박으로부터 기인함

- 현재의 재정수지 적자 수준은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기에 재정건전화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출 효율화 및 정부수입 확대가 필요함
  - 중국, 태국, 베트남, 동티모르 등은 2025년 현재의 확장적 지출을 유지하는 반면, 한국, 일본 등은 긴축적 지출정책으로 전환할 전망이다<sup>11)</sup>

표 I-5 GDP 대비 재정수지(2019~2025년)

(단위: %)

국가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브루나이	-3.7	-15.8	-8.2	2.5	-10.9	-10.2	-10.3
캄보디아	2.2	-2.5	-5.2	-0.3	-2.8	-3.1	-3.2
중국	-6.0	-9.6	-5.9	-7.3	-6.7	-7.3	-8.6
인도네시아	-2.1	-6.1	-4.4	-2.3	-1.9	-2.3	-2.6
한국	0.4	-2.1	0.0	-1.5	-0.7	-0.6	-0.4
라오스	-3.2	-5.4	-0.7	0.1	0.0	2.3	-0.9
말레이시아	-2.0	-4.9	-6.0	-4.6	-4.0	-4.0	-3.4
몽골	1.0	-9.2	-3.0	0.7	2.7	1.4	1.0
미얀마	-4.7	-6.6	-2.5	-2.8	-5.2	-5.3	-5.7
필리핀	-1.5	-5.5	-6.2	-5.5	-4.4	-4.0	-3.9
싱가포르	3.8	-6.7	1.1	1.2	3.5	4.4	3.1
태국	0.4	-4.5	-6.7	-4.6	-2.0	-1.3	-3.1
동티모르	-25.4	-18.9	-20.1	-31.7	-37.3	-44.3	-51.0
베트남	-0.4	-2.9	-1.4	0.7	-2.4	-1.6	-3.4

주: 일반정부 순융자(Net Lending) / 순차입(Borrowing) 기준이며, 예상치는 기울임으로 표기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weo-database/2025/april>, 검색 일자: 2025. 6. 16.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정부부채) 아시아 지역의 정부부채 수준은 팬데믹 이전 대비 아직 높은 수준이며 심각한 부채위험에 빠진 국가는 비록 소수이나, 외부충격 발생 시 위험수준까지 악화될 수 있는 불확실한 상태임
  - 이는 대체로 중장기적 재정적자, 통화가치 하락(Depreciation), 고금리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음<sup>12)</sup>

11) AMRO(2025), p. 7.

12) Asian Development Bank(2025b), p. 21.

- 많은 국가들에서 2024년의 성장이 부채부담을 덜어주었으나 고금리는 아직 커다란 부담임
  - 특히 외채가 많은 저소득 국가일수록 고금리의 부담이 매우 큼
-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의 경우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부채를 늘리는 추세임<sup>13)</sup>
  - 그러나 이는 정부-은행 간 연계성을 증가시키고, 금융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킴

표 I-6 GDP 대비 정부부채(2019~2025년)

(단위: %)

국가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브루나이	2.6	2.9	2.5	2.1	2.3	2.3	2.2
캄보디아	20.8	25.2	25.9	25.0	25.7	26.6	29.1
중국	59.4	69.0	70.1	75.5	82.0	88.3	96.3
인도네시아	30.6	39.7	41.1	40.1	39.6	40.2	41.0
한국	39.7	45.9	48.0	49.8	50.7	52.5	54.5
라오스	69.1	76.0	92.9	130.7	115.6	96.4	91.4
말레이시아	57.1	67.7	69.2	65.5	69.7	70.4	70.1
몽골	66.8	83.4	67.7	64.5	45.9	44.4	42.6
미얀마	38.3	48.7	59.2	55.6	57.9	61.3	62.6
필리핀	37.0	51.6	57.0	57.4	56.5	57.1	58.1
싱가포르	127.9	148.2	141.7	154.3	172.8	174.3	174.9
태국	41.1	49.4	58.4	60.5	62.3	63.2	64.5
동티모르	9.5	10.1	6.5	7.9	12.4	13.2	13.9
베트남	41.0	41.3	39.2	34.9	34.4	32.9	33.6

주: 일반 정부부채 기준이며, 예상치는 기울임으로 표기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weo-database/2025/april>, 검색 일자: 2025. 6. 16.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13) The World Bank(2025a), p. 28.

# 3 | 아시아 지역 재정정책 이슈: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속 재정정책

- (배경)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2025년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속에서도 팬데믹 이후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음
  - 중앙정부들은 팬데믹 당시 도입했던 재정지원을 점진적으로 철회하고 있으며, 2024년의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둔화로 세입이 증가하였음<sup>14)</sup>
  -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제개발과 사회복지 지출을 위한 정부지출도 확대되고 있으며, 몇몇 국가들<sup>15)</sup>은 확장적인 재정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총재정수요(Gross Financing Needs) 역시 여전히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부들은 재정지출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음<sup>16)</sup>
  - 정부부채의 경우 대부분 국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팬데믹 이전 대비 높은 수준이며, 중장기적인 재정수지 적자로 인해 채무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불확실성)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지정학적 경쟁과 그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아시아 지역의 재정에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함
  - 미국의 관세 인상과 이에 대한 각국의 대응이 전면적인 수준으로 상승될 경우 아시아 지역의 수출 성장 및 재정수입을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각국은 성장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시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무역 갈등 외에도 광범위한 지정학적 경쟁은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위협적임<sup>17)</sup>
    - 글로벌 경제의 분절화는 무역 및 투자 흐름을 저해해 성장을 둔화시키고 이는 세수 감소 및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지정학적 불안정 및 글로벌 공급망 단절이 심화될 경우 각국이 국방, 공급망 다변화, 산업정책 등 기존

14) AMRO(2025), p. 3.

15) <표 1-3>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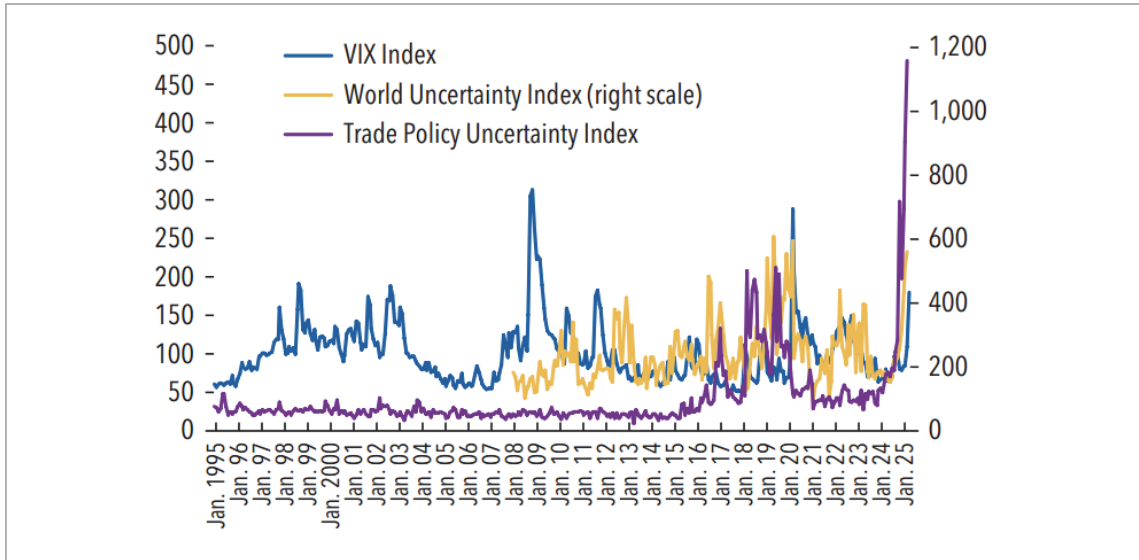
16) AMRO(2025), p. 9.

17) IMF(2025a), pp. 12~15.

지출 외의 등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고 이는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수입관세 인상과 정책 불확실성은 선진국의 경우 GDP의 4%, 개발도상국의 경우 6% 정도 부채 수준을 높일 수 있음

그림 I-2 불확실성 인덱스(지정학적 위험, 무역정책, 불확실성)



주: VIX(CBOE Volatility Index)는 시카고옵션거래소에서 만든 S&P500 지수 옵션의 변동성 기대치를 나타내는 지수로 흔히 공포지수(Fear Index)라고도 부름.

자료: IMF(2025a) p. 1.

□ (정부수입 강화) 현재 아시아 지역 국가들에게 재정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과제는 재정수입 강화임

-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수준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 국내자원조달(DRM) 확충이 필수적임
  - 국가별 GDP 대비 조세수입 비율은 10% 미만에서 30% 이상까지 편차가 매우 큰 편이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대부분 낮은 수치를 보임<sup>18)</sup>
  - 이는 경제 구조, 조세 정책, 행정 역량의 차이에서 비롯되며, 이 때문에 많은 국가들에서 세수 확대 여지가 있음을 시사함
- 세수 확충은 단기적으로 시급한 과제이면서도 장기적인 발전목표임
  - 세입이 늘어날 경우 무리한 차입 없이도 인프라, 인적자본, 사회안전망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여력이 생김

18) Asian Development Bank(2025a), p. 5.

- 다만 공공재정 개혁과정에서 세수 증대는 성장친화적이고 형평성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sup>19)</sup>
  - 단순한 세율 인상보다는 과세 기반을 확대하려 노력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을 보장하여 납세자들의 세금이 공공지출로 어떻게 환류되는지 명확히 보여주어야 함

□ (재정건전성) 아시아 국가들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현 시기에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포용적 성장과 장기적 개발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공공재정 안정과 더불어 취약계층 및 미래성장 잠재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이 필요<sup>20)</sup>
- 이를 위해 전면적 지출 삭감보다 지출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
  - 불필요하거나 중요도가 낮은 지출을 줄이고, 이를 시급한 분야에 재분배하는 접근이 바람직함
    - 일례로 팬데믹 시대에 도입했던 일시적 지원정책 및 보조금 제도를 종료하고 이를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 등으로 전환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만함
- 노동시장 역량강화, 사업환경 개선, 인프라 격차 해소 등 생산성과 잠재성장을 높이는 구조개혁 역시 장기적인 세입 증가 도움이 됨<sup>21)</sup>
  -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고령화와 기후변화 등 장기적인 구조적 과제가 향후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므로 연금 및 보건 개혁, 기후변화 대응 투자 등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함<sup>22)</sup>

□ (프레임워크)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재정준칙(fiscal rule) 및 중기 재정프레임워크(Medium Term Fiscal Framework, MTF)를 도입 및 강화하고 있음

- 재정준칙 및 중기 재정프레임워크는 재정운영에 제도적 규율을 부여하고, 재정건전화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줌
- 특히 재정준칙 및 중기 재정프레임워크를 통해 점진적으로 재정 조정을 수행하면서 정부부채를 줄이는 동시에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함<sup>23)</sup>
  - 재정준칙의 경우 법적 구속력 혹은 정치 공약에 기반하되, 충격 상황에 대비한 예외조항을 포함함으로써 유연성을 제고시킬 수 있음<sup>24)</sup>

19) AMRO(2025), pp. 20~21.

20) AMRO(2025), p. 22.

21) IMF(2025a), p. 38; AMRO(2025), p. 21.

22) The World Bank(2025a), pp. 67~69.

23) IMF(2025a), p. 17.

24) Debrun et al.(2018), p. 22.

- (MTFF) 중기 재정프레임워크의 경우 인구고령화, 기후변화, 국방 등 향후 지출 압력을 반영한 현실적 재정전략 수립이 필요함
  - 무리한 지출 삭감 없이도 점진적인 재정건전성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해주고, 현재 정책이 미래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보여줌으로써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임

□ (정부부채) 정부부채 관리 전략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외부충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만기 연장 협의, 현지통화 차입 확대, 투자자 기반 다각화 등을 통해 정부부채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음
-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관련 부채까지 포함한 포괄적 접근 및 장기적 시계 확보를 통해 잠재적 재정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목표 이탈을 방지할 수 있음<sup>25)</sup>
- 잠재부채를 포함한 전체적인 공공부채의 투명성이 신뢰 유지에 핵심적임

그림 I-3 AMRO의 ASEAN+3 재정여력 평가

	Step 1 Financing availability <sup>1)</sup>	Step 2 Debt sustainability <sup>2)</sup>	Step 3 Simulation <sup>3)</sup>	Step 4 Country-specific factors <sup>4)</sup>	Final Judgement
Lao PDR	Red	Grey	Grey	Grey	Limited
Myanmar	Red	Grey	Grey	Grey	Limited
Japan	Green	Red	Grey	Grey	Limited
China	Green	Red	Grey	Grey	Moderate
Malaysia	Yellow	Yellow	Yellow	Yellow	Moderate
Philippines	Yellow	Green	Green	Green	Moderate
Vietnam	Yellow	Green	Green	Green	Moderate
Cambodia	Yellow	Green	Green	Green	Moderate
Indonesia	Yellow	Green	Green	Green	Moderate
Thailand	Green	Yellow	Yellow	Yellow	Moderate
Korea	Green	Green	Green	Yellow	Moderate
Singapore	Green	Yellow	Green	Green	Ample
Brunei	Green	Green	Green	Green	Ample
Hong Kong	Green	Green	Green	Green	Ample

주: 1) 재원 조달 가능성(financing availability): 국가가 재정조달을 할 수 있는 정도  
 2) 정부부채 지속가능성(debt sustainability): 부채위험 및 총 재정수요(GFN)으로 부채지속가능성 평가  
 3) 모의분석(simulation): 기초재정수지의 두 표준편차 규모에 해당하는 재정지출 확대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이에 따른 거시경제지표 변화를 분석함  
 4) 국가별 특수 변수(Country-specific factors): 국가별 특수 변수를 감안하여 마지막으로 평가를 수행함

자료: AMRO(2025) p. 14.

25) AMRO(2025), p. 30.

## □ 제언점

- 재정준칙 및 중기 재정프레임워크와 같은 법과 제도를 통해 재정건전화에 대한 신뢰를 뒷받침하는 방안이 권장됨
- 중기적으로 재정적자 축소를 통해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함
  - 특히 자원이 풍부한 국가인 경우 일시적 세입이 발생했을 때 ‘비상기금’ 등에 적립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 포괄적인 세제 개혁과 행정 개선을 통해 국내 자원조달을 제고해야 함
  - 불필요한 면세 및 세금 특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과세기반 확대가 필요
  - 디지털 인프라, 데이터 관리, 인력 역량 강화 등 현대적인 세무행정체계에 투자하여 납세 순응률 및 징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함
- 비효율적인 지출을 파악하여 정부지출 효율화를 이루어내야 함<sup>26)</sup>
  - 핵심적인 사회복지 지출은 재정건전화 과정에서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경기 둔화 및 외부 충격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계획과 재정여력을 마련해야 함<sup>27)</sup>
  - 세입 감소나 지출 확대가 필요한 경우를 상정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거나, 예산 내에서 예비비나 비상대응기금 마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실제로 거시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시 재정 당국은 통화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함
    - 긴급 재정지원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고, 일시적이며, 명확한 목표를 선정해야 함
- 정부부채 관리를 위해 사전적으로 관리하여 리스크를 줄여야 하며, 공공부문 전체 및 잠재적 부채까지 포함하여 폭넓게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공개함으로써 신뢰를 유지해야 함
  - 고위험 부채 국가의 경우 조기에 다자간 조율을 통해 부채 재조정을 진행해야 함<sup>28)</sup>
- 재정개혁의 필요성 및 장기적 효과에 대해 국민과 조기에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함
- 세금 인상 및 지출 조정 같은 조치에 대해 연대를 통해 지지 확보가 필요함<sup>29)</sup>
  - 영향을 받는 집단에 대한 보상방안 역시 개혁 설계에 포함함으로써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음
  - 공공재정 지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납세 순응도 및 신뢰를 높일 수 있음

26) The World Bank(2025a), pp. 52~53.

27) AMRO(2025), p. 18.

28) 라오스의 경우 부채상환을 위해 채권자와 협상 및 조정을 실행한 사례가 있음.

29) AMRO(2025), p. 20.

## 4 | 아시아 지역 재정정책 이슈: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 (배경) 매년 개최되는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ASEAN과 한국, 일본, 중국의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가 모여 재정 및 금융 부문에서의 협력을 논하는 회의<sup>30)</sup>
  -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아시아 지역 내 경제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1999년 출범하였음
    - 2012년부터 중앙은행 총재 역시 참여하기 시작
  - 2025년 제28차 회의는 5월 4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됨
    - 올해 회의에는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뿐만 아니라, AMRO, IMF, ADB 등 주요 싱크탱크 및 국제기구 까지 참여하였음
  
- 공동선언서를 통해 고조되는 보호무역주의가 글로벌 경제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며, 역내 연대 및 협력 강화를 촉구하였음<sup>31)</sup>
  - 특히 재정정책에 대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선별적 투자를 계속 제공하는 한편, 재정 여력(Fiscal Buffer)을 마련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병행하도록 촉구하였음
  - 또한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주의 및 규범 기반의 자유 무역체제 지지를 표명하였음
  
- (재정정책 교류) 회원국들이 재정정책 및 재정관리 관행에 대하여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플랫폼으로 2025년 'ASEAN+3 재정정책 교류 이니셔티브(Fiscal Policy Exchange Initiative)'를 발족함
  - 이번 회에는 ① 재정지속가능성 유지 및 성장촉진의 병행 ② 인구 고령화 대응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였음

30)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5. 5. 5.)

31) ASEAN+3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Meeting(2025. 5. 4.)

- (CMIM) 2010년 체결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CMIM)<sup>32</sup>를 더욱더 효과적인 아시아 역내 금융안전망으로 강화할 예정

  - 특히 신속금융제도(Rapid Financing Facility, 이하 RFF)를 도입하여 급격한 충격에 IMF 없이도 신속긴급 유동성 지원이 가능한 창구를 마련하였음
    - 이전에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자금은 IMF에 연계되어야 했으며, IMF 없이도 쓸 수 있던 IDLP(IMF De-linked Portion)의 비중은 40% 수준에 불과하였음<sup>33</sup>
  - 또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IMF 모델에 따라 납입자본구조(Paid in Capital, 이하 PIC)<sup>34</sup>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전격화
    - 향후 거버넌스 구조, 운영역량, 규모, 통화유형에 대해 2025년 하반기부터 논의할 예정임
  
- (ABMI) 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Asian Bond Markets Initiatives, 이하 ABMI) 중기 로드맵(2023~2026)에 따라 향후 지속가능채권 발행 확대, 국내 시장 기반 조성, 지속가능 금융 생태계 확대를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등의 노력을 지속할 것

  - 특히 산하에 디지털 채권시장 포럼(Digital Bond Market Forum)을 출범하며 역내 채권시장에 대한 연구 및 지식 플랫폼으로 활동하기를 기대하였음
    - 금융당국 관계자, 민간 전문가, ADB 등이 참여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채권시장 혁신 방안을 논의<sup>35</sup>
    - 디지털 자산시장 규제 및 동향을 공유하고, 아시아 역내 채권시장 통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함
  
- (DRFI) 재난위험금융 이니셔티브(Disaster Risk Financing Initiative, 이하 DRFI) 출범을 위해 2026~2028년 로드맵의 컨셉노트를 승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재난 충격 완화를 위한 실행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였음

  - DRFI는 기후재난 및 팬데믹 등 갑작스러운 충격 발생 시 재정 위험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는 협력 프로그램임
    - ASEAN+3 협의체 차원에서 아시아 지역 특화 방식으로 추진 중임
  - 2026~2028년 로드맵은 올해 작성되어 2026년에 최종 채택될 예정임

32)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2000년에 출범한 ASEAN+3 역내 통화스왑 협정 네트워크로 양자 간 통화스왑 협정 체계에서 2010년부터 다자 통화스왑(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CMIM)으로 전환되었음.

33) AMRO(2021. 3. 31.)

34) 납입자본구조(PIC): 국제금융기구가 회원국들로부터 실제 자본을 현금이나 자국통화로 사전에 납입받아, 이를 기구의 운영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 현재 CMIM은 출자금 없이 신용약정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급격한 위기 시 자금 인출이 느리고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35)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5. 2. 10.)

□ 시사점

- ASEAN+3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상반되는 다자간 자유무역주의를 표명하며 역내 경제 및 금융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에 동의하였음
- 특히 CMIM 개혁 및 DFRI 출범을 통해 IMF와 독립된 신속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내 금융안전망 조성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전반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도 디지털 자산 및 지속가능채권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재정 및 경제개발에 대한 관심 역시 높음
  - 또한 ASEAN+3는 인구 고령화, 기후변화 같은 공동된 과제에 직면하고 있고, 이에 대한 선제대응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그림 I-4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자료: ASEAN+3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Meeting, "Joint Statement of the 28th ASEAN+3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Meeting," Press Release, 2025. 5. 4.

# 아시아 재정브리프

Vol.3 No.1 2025년 가을

# II

## 아시아 주요국 재정동향 및 정책이슈

1. 주요국의 재정당국 동향
2. 아시아 주요국 재정정책 이슈: 베트남 재무부 구조조정
3. 아시아 주요국 재정정책 이슈: 몽골 세제개편안 의회 제출
4. 아시아 주요국 재정정책 이슈: 태국 경기부양 예산 편성
5. 아시아 주요국 재정정책 이슈: 필리핀 신정부조달법
6. 아시아 주요국 재정정책 이슈: 말레이시아 세제 개편

# 1 | 주요국 재정당국 동향

## □ 캄보디아

- 캄보디아 재정경제부는 2025~2028년 기업을 위한 전자서비스 발전 전략을 발표함<sup>36)</sup>
  - (목표) 본 전략은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및 기업의 요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 대상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주요 목표로 함
  - (추진 방식) IT 기반으로 한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절차를 통합·폐지하며, 서비스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범부처 협력으로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디지털 경제 및 비즈니스 위원회(Digital Economy and Business Committee, 이하 DEBC)’가 주도하며, 관계부처 및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전략을 이행할 계획임
- 이 전략은 아래 다섯 가지 기본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 원스 온리 원칙(Once-Only Principle)<sup>37)</sup> ▲ 생태계 상호운용성 원칙(Interoperability as an Ecosystem Principle)<sup>38)</sup> ▲ 확장 효율성 원칙(Land and Expand for Efficiency Principle)
  - ▲ 친기업 원칙(Pro-Business Principle) ▲ 운영 우수성 원칙(Operational Excellence Principle)

## □ 중국

- 중국 정부는 2025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기록상 단일연도 최대 부채 증가를 승인하였음<sup>39)</sup>
  - 이러한 부채증가는 지방정부가 승인된 예산 적자를 충당하기 위한 일반 채권 8,000억위안과 특수 목적 채권(Special-Purpose Bonds, 专项债) 4조 4,000억위안을 포함하고 있음

36)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of Cambodia(2025). pp. viii-x.

37) Once-Only Principle(OOP)은 시민과 기업이 정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정부에 다시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원칙임. 공공 행정기관은 시민과 기업으로부터 정보를 한 번만 수집하고, 이 정보를 다른 행정기관과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임. Wimmer(2021), p. 61.

38) Interoperability as an Ecosystem Principle은 여러 조직, 시스템, 데이터, 참여자들이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서로 정보를 자유롭게 주고 받고, 원활하게 협력하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원칙을 의미함.

39) Wong(2025). p. 2.

- 중앙정부는 교체 프로그램 자금 지원과 우선 인프라 지원을 위해 1조 3,000억위안 규모의 초장기 특별 국채(Special Treasury Bonds)를 발행할 예정임
- 또한 5,000억위안 규모의 특별 국채(Special Treasury Bonds)를 발행하여 6대 대형 국유은행의 자본금 총당에 사용할 예정임
- 이로 인해 중앙정부 부채는 기록적인 6조 6,000억위안(약 GDP의 4.7%)만큼 증가하며, 전체적으로 국가 부채는 거의 14조위안(약 GDP의 10%)만큼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정건전성과 정책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입 기반 확대와 조세행정 개혁을 추진 중임<sup>40)</sup>
  - 기존 조세 시스템은 납세자 식별의 비효율성, 세무 정보 분산, 낮은 납세 순응률, 비공식 부문 경제 파악의 어려움 등 다수의 구조적 한계를 지님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5년부터 새로운 핵심 국세행정시스템(Core Tax Administration System, CTAS)을 도입하여 세무 행정의 디지털화와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음
  - 2025년 1월부터 국세납세번호(Nomor Pokok Wajib Pajak, NPWP)와 주민등록번호(Nomor Induk Kependudukan, NIK) 연계가 완료되어 납세자 식별 및 추적이 강화되었으며, 향후 세수 증가(2025~2029년간 GDP 대비 0.5%p)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 라오스

- 라오스 재무부는 2025년 1분기 거시경제 현황을 발표하였음<sup>41)</sup>
  - 라오스 경제는 4.5%의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며 농업·산업·서비스·세금 및 관세 부문에서 모두 성장을 보였다고 설명함
  - 또한 환율 안정과 물가 하락에 따른 내수 회복으로 인해 경제가 회복되었다고 평가함<sup>42)</sup>
- 2025년 상반기에는 국가 예산의 약 49%가 집행되었으며 세입은 연간 목표 대비 51%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상반기 채무 상환율은 연간 목표치의 25%를 달성했다고 보고됨

40) Fujii et al.(2025), p. 15.

41) Lao News Agency, "Finance Minister Reports Positive Economic Outlook at National Assembly Session," 2025. 6. 10. <https://kpl.gov.la/En/Detail.aspx?id=91865>, 검색일자: 2025. 7. 3.

42) 라오스 재무부, 「제9차 국회 정기회의 질의답변」, [https://www.mof.gov.la/news\\_detail/198](https://www.mof.gov.la/news_detail/198), 검색일자: 2025. 7. 3.

## □ 말레이시아

- 2025년 1분기에 전년 동기(4.2%) 대비 4.4%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였다고 발표함<sup>43)</sup>
  -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주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였으며 건설업은 데이터센터 구축 및 민간 주택개발 확대 등에 힘입어 13.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반면 광업은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 차질로 인해 유일하게 역성장하였음
- 정부 수입은 조세 수입 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함. 총지출은 운영비 및 개발비 축소로 인해 지난해보다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sup>44)</sup>
  - 연방정부 운영비는 디젤 보조금 지원 축소와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영향으로 1.7% 감소하였고, 개발비는 경제 및 안보 부문에서 지출이 확대되었지만 사회 부문의 지출이 하락하며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경상수지 적자는 43억링깃으로 전년 동기(77억링깃) 대비 감소하였으며 전체 재정수지 적자도 219억링깃으로 전년 동기(264억링깃) 대비 감소하여 재정건전성이 일부 개선됨

## □ 몽골

- 몽골 재무부는 균형재정 목표가 반영된 2025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의회에서 승인됨<sup>45)</sup>
  - 2025년에 예정되어 있던 일부 국가 기관들의 신규인력 증가율을 조정하여 정부지출을 732억투그릭 삭감하였음
  - 암 전문병원의 임대비용, 학교·유치원 등 아동 급식비, 3교대로 운영되는 고등학교 임대료 등에 100억 투그릭, 에너지 정책 개혁 프로그램에 50억투그릭을 편성하는 등 예산을 새롭게 재분배함
  - 이에 따라 정부수입 및 지출 규모는 각각 33.5조투그릭(GDP의 35.2%)으로 균형재정(GDP의 3.3% 흑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43) Ministry of Finance Malaysia(2025), pp. 2~4.

44) Ministry of Finance Malaysia(2025), pp. 11~12.

45) 몽골 재무부, 「몽골 2025년 예산안 승인」, <https://www.gov.mn/mn/news/all/a92f44ac-3d01-4237-9a33-b5a56a107d09>, 검색 일자: 2025. 6. 2.

□ 필리핀

-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필리핀 개발예산조정위원회 (Development Budget Coordination Committee, 이하 DBCC)는 2025~2028 회계연도의 중기 거시경제 및 재정전망을 검토하고 정부 목표치를 재설정함<sup>46)</sup>
  - 재정 수입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2028년에는 GDP 대비 16.3%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함
    - 2025년 재정수입은 4.52조페소에서 2028년 5.91조페소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디지털 서비스 부가가치세, 자본시장 효율화 등 신규 세제 개혁과 조세행정의 디지털화가 주요 수입 증가 요인으로 작용함
    - 국제청의 디지털 시스템 도입, 전자신고 확대, 비거주 사업자 과세 강화 등을 통해 조세 준수율 제고 및 납세 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임
  - 정부지출은 중장기적으로 GDP의 20%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인프라 및 사회서비스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임
    - 2025년 6.08조페소에서 2028년 7.47조페소까지 증가할 예정이며, 교육·보건·디지털 전환 등을 핵심 분야로 설정함
    - 인프라 지출은 GDP의 5~6%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경기 활성화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예정임
  - 재정적자는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28년까지 4.3%로 감축할 예정임
    - 재정건전화(Fiscal Consolidation) 전략 아래 성장세를 유지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함
    - 성장 촉진과 포용성 확대, 중기 재정프레임워크의 안정적 이행에 중점을 둠

□ 싱가포르

- 싱가포르 재무부는 독립 60주년(SG60)을 기념하는 종합 지원 패키지를 발표하였으며, 2025~2026 회계연도에 걸쳐 국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임<sup>47)48)</sup>
  - 가구당 총 800싱가포르달러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개인 단위로는 600~800싱가포르달러의 바우처가

46) DBCC(2025. 6. 26.) 필리핀 개발예산조정위원회(DBCC)는 예산관리부(DBM), 재무부(DOF), 국가경제개발청(NEDA), 필리핀 대통령실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협의체로, 거시경제 목표 설정, 수입 전망, 차입 수준 및 예산 규모 결정, 지출 우선순위 승인 등을 담당하며, DBM 장관과 DOF 장관이 공동의 장을 맡음.

47) Ministry of Finance Singapore, "Budget 2025 Highlights, Celebrating SG60," <https://www.mof.gov.sg/singaporebudget/budget-2025-highlights/celebrating-sg60>, 검색일자: 2025. 6. 25.

48) Prime Minister's Office Singapore, "PM Lawrence Wong at the Launch of the CDC Vouchers Scheme 2025 (May)," <https://www.pmo.gov.sg/Newsroom/PM-Lawrence-Wong-at-the-Launch-of-the-CDC-Vouchers-Scheme-2025-May>, 검색일자: 2025. 6. 25.

- 추가적으로 제공되며, 그 외에도 공공요금 리베이트 및 출생 축하금 등을 제공함
- 아울러 의료저축제도(MediSave), 양육비 지원 정책, 문화 패스 크레딧 등 각종 특별 지원정책을 마련함
- 싱가포르 정부는 이러한 혜택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을 것이며 향후 주택, 의료, 교육, 은퇴 등의 분야에 대한 사회 시스템을 검토하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임을 강조함
- 이러한 지원 정책을 위한 예산은 세수 증대를 통해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싱가포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힘

#### □ 베트남<sup>49)</sup>

- 베트남 재무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등의 도전과제에도 불구하고 2025년 4월 1분기에 기록한 긍정적인 경제성과를 발표함
  - 2025년 1분기 GDP 성장률은 6.93%로 추산되며, 이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1분기 중 가장 높은 수치임
    - 그러나 이 수치는 2025년 연평균 8% 성장 시나리오에서 1분기 성장률 목표치인 7.7%에는 미치지 못한 결과임
    - 서비스 및 관광 부문은 1분기에 7.7% 성장하여 전체 성장의 50% 이상 기여하였고, 1분기에만 600만명이 넘는 역대 최대 외국인 관광객을 기록함
  - 미국이 베트남에 46%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경우, 대미 수출이 큰 타격을 입어 산업 생산, 민간 투자, 고용 등 전반적인 경제 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49) Vietnam Investment Review, "MoF updates economic growth outlook for 2025 amid challenges," <https://vir.com.vn/mof-updates-economic-growth-outlook-for-2025-amid-challenges-125995.html>, 검색일자 : 2025. 6. 30.

## 2 | 아시아 주요국 재정정책 이슈: 베트남 재무부 구조조정

- 베트남 국회는 2025년 2월 18일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2021~2026년 임기 동안의 정부조직은 14개 부처와 3개 부처급 기관으로 간소화됨<sup>50)</sup>

  - 기존 18개였던 중앙부처 중 5개 부처가 통폐합되었고, 1개 부처(소수민족종교부, Ministry of Ethnic Minority and Religious Affairs)가 신설됨
    - 개편안에 따르면 기획투자부는 재무부로, 노동보훈사회부는 내무부로, 교통운송부는 건설부로, 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부로 통폐합되었으며, 농업농촌개발부와 자연자원환경부가 농업환경부로 통합됨<sup>51)</sup>
  -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조직 개편을 통해 정부 효율성 증대 및 행정 간소화, 자원배분 최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공공 부문 인력 구조조정도 이루어질 것이며, 약 10만명의 공무원이 일자리를 잃는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sup>52)</sup>
  
- 베트남 재무부는 기획투자부와 통합되어 사회보험청과 국영기업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자본관리 위원회의 업무를 이관 받았으며, 재무부 전체 행정단위의 37.7%에 달하는 3,600개의 행정단위를 감축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할 예정임<sup>53)</sup>

  - 이러한 정부조직 간소화를 통해 재무부의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고, 대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베트남 경제의 핵심 기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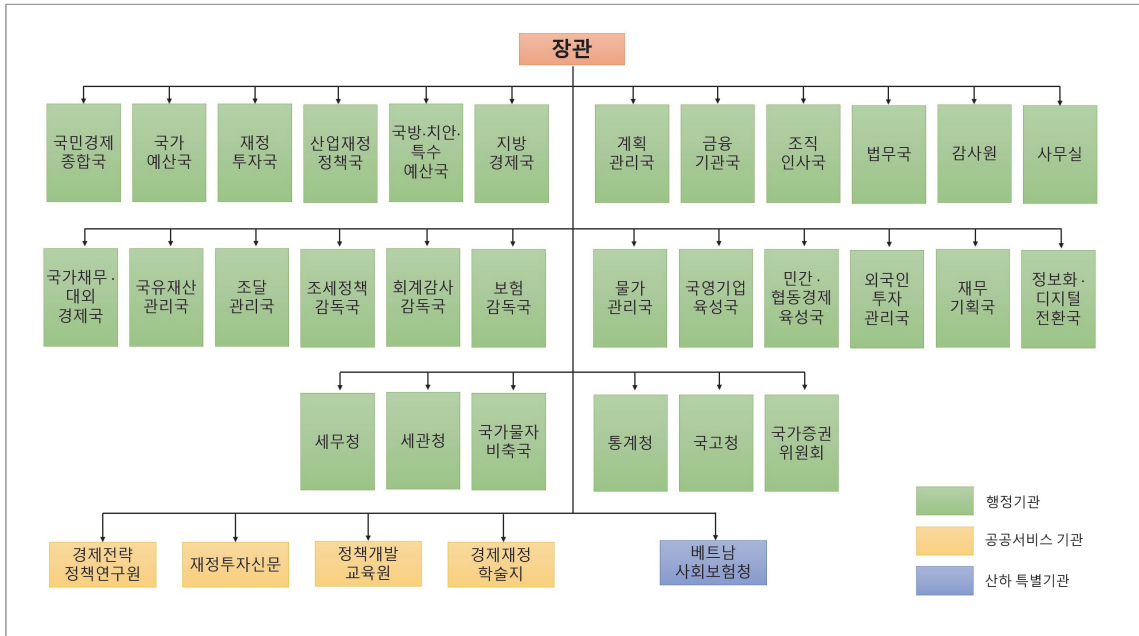
50) Vietnam Pictorial, "Streamlining for a better future," <https://vietnam.vnnet.vn/english/long-form/streamlining-for-a-better-future-396776.html>, 검색일자: 2025. 6. 30.

51) Vietnam Law & Legal Forum, "Ten ministries merged into five after apparatus streamlining: Minister," <https://vietnamlawmagazine.vn/ten-ministries-merged-into-five-after-apparatus-streamlining-minister-73433.html>, 검색일자: 2025. 6. 30.

52) Vietnamnet Global, "Vietnam's labor market faces pressure as 100,000 public workers exit," <https://vietnamnet.vn/en/vietnam-s-labor-market-faces-pressure-as-100-000-public-workers-exit-2368895.html>, 검색일자: 2025. 6. 30.

53) Vietnamnet Global, "Government streamlines Ministry of Finance, reducing bureaucracy by 37.7%," <https://vietnamnet.vn/en/government-streamlines-ministry-of-finance-reducing-bureaucracy-by-37-7-2369655.html>, 검색일자: 2025. 6. 30.

그림 II-1 베트남 재무부 조직도(조직통합 이후)



자료: 베트남 재무부, 「조직도」, [https://mof.gov.vn/webcenter/portal/btcvn/pages\\_r/m/gioi-thieu-bo/tchcbmy](https://mof.gov.vn/webcenter/portal/btcvn/pages_r/m/gioi-thieu-bo/tchcbmy), 검색일자: 2025. 5. 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대규모 정부조직 구조조정과 함께 베트남 정부는 지방 행정구역도 통폐합을 추진하여 지방 행정 조직 역시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음

- 2025년 4월 12일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국가 행정 체계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승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방 수준의 행정단위를 63개에서 34개로 축소함<sup>54)</sup>
  - 현행 63개의 성·시로 구성된 지방정부 체계를 6개의 직할시와 28개의 성 등 총 34개로 개편함
- 지구 단위의 운영을 중단함으로써 3단계 지방 정부모형을 2단계로 간소화하여, 지방 정부의 행정 효율성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54) *The Saigon Times*, "Vietnam approves major administrative overhaul, streamlining local governance," 2025. 4. 12. <https://english.thesaigontimes.vn/vietnam-approves-major-administrative-overhaul-streamlining-local-governance/>, 검색일자 : 2025. 6. 30.

### 3 | 아시아 주요국 재정정책 이슈: 몽골 세제개편안 의회 제출

- 몽골 재무부는 세제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개인 및 기업의 세금 부담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세금 시스템, 등록절차 및 적용 범위 등을 개선하여 공정한 세금 부과 및 납부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됨<sup>55)</sup>
  - (부가가치세 인하) 월 50만투그릭 이하 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0% 감면, 월 50만투그릭 초과 80만투그릭 이하는 50%, 그 이상의 소비에 대해서는 20%를 감면해 줌

표 II-1 몽골 부가가치세 환급률

(단위: 투그릭, %)

월간 구매금액	환급 비율
50만투그릭 이하	100%
50만~80만투그릭	50%
80만투그릭 초과	20%

자료: PricewaterhouseCoopers Tax TMZ, "Tax Alert - Proposed Changes to the Tax Laws," [https://www.pwc.com/mn/en/tax/alerts/pdf/2025/tax\\_alert\\_2\\_2025\\_en.pdf](https://www.pwc.com/mn/en/tax/alerts/pdf/2025/tax_alert_2_2025_en.pdf), 검색일자: 2025. 7. 17.

- (소득세 감면) 소득이 월 80만투그릭 이하인 근로자에게는 소득세를 면제해 줌
- (지방이주 지원) 울란바토르에서 지방으로 이주 시 최대 1,500만투그릭의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친환경, 에너지 효율 건물에 세제 혜택을 부여할 것임
- (기업 세제지원 강화) 법인세를 25% 납부하는 기준선을 60억투그릭에서 100억투그릭 기업으로 상향 조정함
  - 60억투그릭 이상 100억투그릭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법인세율을 15%로 인하할 예정임
  - 아울러 15억투그릭 이상 25억투그릭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 인하된 법인세율을 적용하며, 3년간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할 것임

55) 몽골 정부, 「세제개편안 의회 제출」, <https://www.gov.mn/mn/news/all/3278536e-9877-40a0-ab95-f682843f61ee>, 검색일자: 2025. 6. 5.

- 연간 매출액이 4억투그릭 이하인 납세자를 위한 간편 신고 절차를 제공할 것이며 영수증이 없는 현금 구매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할 것임

표 II-2 몽골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율

과세소득(투그릭)	기본 세율	추가 세율
60억투그릭 이하	6%	0~4%
60억~100억투그릭	9%	0~6%
100억투그릭 초과	15%	0~10%

자료: PricewaterhouseCoopers Tax TMZ, "Tax Alert – Proposed Changes to the Tax Laws," [https://www.pwc.com/mn/en/tax\\_alerts/pdf/2025/tax\\_alert\\_2\\_2025\\_en.pdf](https://www.pwc.com/mn/en/tax_alerts/pdf/2025/tax_alert_2_2025_en.pdf), 검색일자: 2025. 7. 17.

- (행정 편의 제공) 세무 및 관세 기관에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납세자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24시간 응답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납세자의 행정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4 | 아시아 주요국 재정정책 이슈: 태국 경기부양 예산 편성

- 태국 내각은 2025년 6월 24일 총 1,570억바트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를 승인하였으며, 이 중 1,153억바트는 50개 정부 부처가 집행하는 481개 프로젝트에 배정되어 단기적인 경기부양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과 포용적 성장을 지향하는 태국 정부의 재정정책 기초를 반영함<sup>56)</sup>
  - 정부는 이 경기부양책으로 약 7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로·건설·전력·상수도 인프라를 확충하여 GDP 성장률을 0.4%p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발표
- 본 예산은 4대 부문(인프라, 관광, 수출·농업·디지털, 지역사회 활성화)에 균형 있게 배분되어 경제 전반의 구조적 회복을 도모함<sup>57)</sup>
  - 인프라 개발(850억바트): 수자원 시설 개선, 도로 신설 등을 통해 중소 도시의 도로망을 개선, 농업 물류 지원 및 교통 혼잡 해소
  - 관광 개발(100억바트): 관광명소 시설 및 보안(CCTV 설치 등) 개선, 중소 도시 관광 인프라 보완
  - 수출·농업·디지털 경쟁력 강화(111억바트)
    -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 지원 사업 추진
    - 미국 관세정책으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저금리 대출 제공
    - 무역·농업·공공서비스 분야의 디지털 인프라 개선
  - 지역 및 공동체 경제 활성화(92억바트): 마을-도시 공동체 펀드(National Village and Urban Community Fund), 교육 인적자원 개발

56) *The Nation*, "Thailand Approves 151 Billion Baht Economic Stimulus Package to Counter Global Volatility," <https://www.nationthailand.com/business/economy/40051685>, 검색일자: 2025. 6. 27.

57) Bangprapa, Mongkol, "Cabinet approves B115 billion for stimulus projects," *Bangkok Post*, 2025. 6. 24.,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general/3056870/cabinet-approves-b115-billion-for-stimulus-projects>, 검색일자: 2025. 6. 26.

- 또한 1,150억바트 규모의 예산을 저소득 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전략을 채택함
  - 동북부 지역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배분하는 한편, 소득 수준이 높은 방콕이나 동부 지역에는 비교적 소규모 예산 배정을 통해 포용적 성장과 지역 불균형 해소를 모색함
  
- 재무부는 2025년 9월 30일까지 계약 체결 또는 조달 완료가 이뤄지지 않는 사업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집행의 신속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임
  
- 아울러 태국정부는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피해를 본 수출기업이 운영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 2,000억바트 규모의 저리대출(Soft Loan)도 병행 예정이라 밝힘<sup>58)59)</sup>

---

58) Reuters, "Thai cabinet approves projects worth \$3.5 bln to stimulate economy," 2025. 6. 24.,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boards-policy-regulation/thai-cabinet-approves-projects-worth-35-bln-stimulate-economy-2025-06-24/>, 검색일자: 2025. 6. 27.

59) Chantanusornsiri, Wichit, "Finance Ministry mulls soft loans for global trade," 2025. 4. 24.,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general/3009971/finance-ministry-mulls-soft-loans-for-global-trade>, 검색일자: 2025. 6. 30.

## 5 | 아시아 주요국 재정정책 이슈: 필리핀 신정부조달법 (New Government Procurement Act)

- 필리핀 정부는 공공조달의 투명성,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조달 체계를 현대화하고자 2024년 7월에 「신정부조달법(New Government Procurement Act, Republic Act 12009)」을 제정함<sup>60)</sup>

  - 기존의 「정부조달개혁법(Government Procurement Reform Act, Republic Act No. 9184)」은 2003년에 제정되어 21년간 적용되었으나, 제도의 전반적인 노후화와 한계로 인해 전면 개정이 필요했으며, 이에 따라 2024년에 「신정부조달법」을 새롭게 제정함
  - 「신정부조달법」은 공공조달이 필요한 모든 정부 기관 및 지방 조직에 적용되며, 조달의 전 과정에서 ▲ 투명성 ▲ 경쟁성 ▲ 비례성 ▲ 책임성 ▲ 참여 ▲ 전문성 ▲ 지속가능성 ▲ 경제적 가치 극대화(Value for Money) 등의 원칙을 명시함
  - 또한, 중장기 전략적 조달계획 수립, 전자조달(PhilGEPS) 시스템 활용, 생애주기비용 평가, 다양한 조달방식의 도입, 조달 담당 인력의 전문화 및 윤리기준 확립 등을 통해 공공조달 전반의 제도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신정부조달법」 제정 이후 시행규칙(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이하 IRR)을 마련하여 정부조달정책위원회(Government Procurement Policy Board, 이하 GPPB)의 승인을 받은 2025년 2월부터 「신정부조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

  - 「신정부조달법」은 필리핀 정부 조달의 기본 원칙과 법적 틀을 규정하며, 투명성·효율성·지속가능성 등 공공조달의 방향을 제시하고, 시행규칙(IRR)은 법의 원칙을 바탕으로 구체적 절차, 기준, 양식 및 시스템 운영 방안을 명확히 설명함
  - 시행규칙(IRR)은 법률의 기본 원칙과 목표를 실제 운영에 맞게 구체화한 지침을 포함하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sup>61)</sup>

60) Republic of the Philippines, Republic Act No. 12009 (New Government Procurement Act). July 20, 2024.

61) Government Procurement Policy Board,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of Republic Act No. 12009*. GPPB Resolution No. 02-2025, February 4, 2025.

- 전략적 조달계획 수립을 위한 시장조사 의무화
- 전자조달(PhilGEPS) 시스템 기능 확대
- 자격요건 간소화(플래티넘 인증제 도입)
- 새로운 조달방식의 구체적 절차 규정
- 가장 경제적이고 응답성 높은 입찰 기준(MEARB, MARB) 도입
- 녹색 및 포용적 조달
- 전문 인력 양성과 인증제
- 계약 집행 및 관리 기준 강화
- 아울러 모든 조달 회의 영상기록 의무화, 실소유자 공개, 보안유지와 개인정보보호 간의 균형 등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에 중점을 둔 실행체계를 마련함

## 6 | 아시아 주요국 재정정책 이슈: 말레이시아 세제 개편

- 말레이시아는 최근 판매세 항목 조정 및 서비스세 과세 범위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조치는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임
  - 본 개편은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조세 구조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중기적 세제 개편으로, 국민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둬<sup>62)</sup>
  -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필수 소비재에 대한 판매세는 현행을 유지
    - 선택적 소비재에 대해서는 5% 또는 10%의 판매 세율을 적용
    - 서비스세 과세 범위는 리스·임대, 건설, 금융서비스, 민간 의료, 교육, 미용 서비스 등으로 확대함
      - 중복과세 방지 및 국민의 기초 생활 서비스 보호를 위한 선택적 면세 적용
  -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추가로 확보되는 세입을 현금 지원 확대, 공공서비스 개선, 인프라 투자 등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직결된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계획임

62) Ministry of Finance Malaysia, "Targeted Revision of Sales Tax Rate and Expansion of Service Tax Scope Effective 1 July 2025," <https://www.mof.gov.my/portal/en/news/press-release/targeted-revision-of-sales-tax-rate-and-expansion-of-service-tax-scope-effective-1-july-2025>, 검색일자: 2025. 7. 3.

# 아시아 재정브리프

Vol.3 No.1 2025년 가을

# III

## 주요국 2025~2026년도 예산안

1. 태국
2. 브루나이

# 1 | 태국

## 가. 2026회계연도 예산기조

- (2026회계연도 예산안) 태국 정부는 총 3조 7,806억바트 규모의 2026회계연도(2025. 10. 1.~ 2026. 9. 30.)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함
  - 본 예산안은 2025. 5. 31. 하원에서 1차 심의를 통과했으며, 2025년 8월 중 추가 하원 심의와 상원 예산심의를 거칠 예정임
  - 2026회계연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0.7% 증가한 수준임
  
- (예산기조) 2026회계연도 예산안의 목적은 ▲ 안정적인 경제성장 촉진 ▲ 생산 및 서비스 부문 발전 ▲ 국가 인프라 확충 ▲ 경제적 기회 창출 및 사회적 형평성 제고 ▲ 국민 삶의 질 향상, 환경 지속가능성, 국민의 안정 보장 등에 있으며, 이는 6대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마스터플랜, 핵심 정부정책 이행을 통해 실현될 계획
  
- (재정수지) 2026회계연도에도 태국 정부는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며, 경기 회복과 경제 안정화를 위해 적자 재정 운영을 지속할 계획임
  - 2026회계연도 적자는 8,600억바트(GDP 대비 4.3%)로 설정되었고, 이는 전년도에 이어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위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임
  - 해당 재정적자 재원은 국채 발행 등 차입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2025년 65.6%에서 2026년 67.3%로 상승할 전망이다
    - 태국 재무부 산하 공공부채관리청(Public Debt Management Office, PDMO)에 따르면 정부부채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29년에는 GDP의 69.3%에 이를 것으로 예측<sup>63)</sup>
    - 현재 태국의 정부부채는 「재정건전화법(Fiscal Discipline Act)」에서 정한 법정 한도(GDP 대비 70%) 이내 수준을 유지 중

63) The World Bank(2025d), p. 21.

- 태국 정부는 확장 재정기조에 기반해 최근 1,570억바트 규모의 경기부양책<sup>64)</sup>을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재정적자가 일시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함
  - 해당 부양책은 소비 진작, 국내 투자 촉진, 저금리 대출 제공 등을 목표로 하여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고자 함
- 태국 정부는 2025년 확장적 재정 운용을 시작으로 2026년에는 지출 증가율을 둔화(+0.7%)시키고, 2027~2029년에는 연평균 2~3% 수준의 점진적 정상화를 추진하는 로드맵을 수립함
  - 이를 통해 단기적 경기 대응과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병행하고자 함. 또한 정부부채 수준을 GDP 대비 70% 법정 한도 내에서 관리하며 향후 점진적인 지출 조정과 지역균형 재정 배분을 통해 포용적 성장 기반 조성을 병행
- 피차이 춘하와지라(Pichai Chunhavajira) 태국 재무부 장관은 부채 증가 우려에 “중요한 것은 단순한 부채 수준이 아니라 재정 자금의 활용 방식”이라고 강조하며, 재정지출이 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면 일정 수준의 적자는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sup>65)</sup>
  - 한편 IMF는 태국의 정부부채가 아세안(ASEAN) 회원국 평균을 초과하고 있으며, 높은 정부부채 수준은 향후 경제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재정위기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신중한 정책 운용을 권고

64) 2025년 6월 24일 태국 내각 승인 완료. 본고 II-4 참고.

65) *The Nation*, “IMF warns Thailand’s public debt exceeds ASEAN average, urges prudent fiscal policy,” 2025. 4. 24. <https://www.nationthailand.com/business/economy/40049171>, 검색일자: 2025. 6. 27.

표 III-1 태국 정부의 중기재정전망

(단위: 백만태국바트, %)

구분	2024 확정	2025 전망	증감률 (%)	2026 전망	증감률 (%)	2027 전망	증감률 (%)	2028 전망	증감률 (%)	2029 전망	증감률 (%)
총수입	2,791,721 (15.2)	2,887,000 (15.1)	+3.4	2,920,600 (14.7)	+1.2	3,096,400 (14.9)	+6.0	3,244,100 (15)	+4.8	3,389,700 (15.1)	+4.5
총지출	3,542,397 (19.3)	3,752,700 (19.6)	+5.9	3,780,600 (19)	+0.7	3,855,000 (18.5)	+2.0	3,966,000 (18.3)	+2.9	4,093,000 (18.3)	+3.2
재정수지	-750,676 (-4.1)	-865,700 (-4.5)	-15.3	-860,000 (-4.3)	+0.7	-758,600 (-3.6)	+11.8	-721,900 (-3.3)	+4.8	-703,300 (-3.1)	+2.6
정부부채	63.3 (%)	65.6 (%)	+2.3	67.3 (%)	+1.7	68.5 (%)	+1.2	69.2 (%)	+0.7	69.3 (%)	+0.1

주: () 안의 수치는 GDP 대비 비중. 정부부채는 2025년 1월 태국 재무부 산하 공공부채관리청 추계치  
 자료: The World Bank(2025d), p. 22.를 참고하여 작성.

## 나. 중점 투자방향

□ (6대 국가전략별 지출) 2026회계연도 정부지출은 6대 국가전략에 따라 전략적으로 분류되었으며, 총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 사회적 형평성 강화(24.9%) ▲ 인적자원 개발 및 역량 강화(16%) ▲ 공공행정 균형 및 강화(16%) 항목임. 이 외에도 ▲ 국가안보 강화(11%) ▲ 국가경쟁력 제고(10.5%)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친환경 성장(3.9%) 등에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운영 경비로 전체 예산의 17.7%가 별도로 책정됨

- 2026회계연도 예산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6대 국가전략별로 분류되어 있으나, 각 전략별 하위 세부사업의 구성은 상이함. 따라서 지출의 증감률은 정부의 우선순위 변화나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지표로 참고할 수 있으나, 동일 기준에서의 비교는 제한적임

표 Ⅲ-2 태국 2026회계연도 전략별 정부지출

(단위: 백만태국바트, %)

국가전략별 정부지출	2025 회계연도		2026 회계연도		전년 대비 증감률
	예산	총예산 비중	예산	총예산 비중	
국가안보 강화	403,868	10.8	415,327.9	11	2.8
국가경쟁력 제고	362,199.9	9.7	394,611.6	10.5	8.9
인적자본 개발 및 역량 강화	582,704.1	15.5	605,927.3	16	4
불평등 완화 및 사회적 형평성 증진	926,266.8	24.7	942,709.2	24.9	1.8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친환경 성장	136,851.3	3.6	147,216.9	3.9	7.6
공공행정 균형 및 강화	645,499.5	17.2	605,441.6	16	-6.2

자료: 태국 예산국, 「회계연도 2026년 태국 예산 브리프」, <https://www.bb.go.th/en/topic3.php?gid=709&mid=456>, 검색일자: 2025. 6. 5.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Ⅲ-3 태국 2026년 예산안 국가전략별 세부사업

(단위: 백만태국바트, %)

국가전략	전략별 세부 사업	2026 회계연도
국가전략 1: 국가 안보 강화	목표: 국가 안보 강화	415,327.9 (총예산의 11%)
	- 남부 접경 지역 개발	
	- 국제관계 증진	
	- 마약 예방 및 단속	
	- 국가 주요 제도 보호	
	- 국가보안 위협 대응 및 저감	
	- 재난대비 및 관리	
	- 국내 치안 유지 및 국방 역량 강화	
- 국가안보 관련 핵심·지원 사업 운영		
국가전략 2: 국가경쟁력 제고	목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촉진 및 국가경쟁력 강화	394,611.6 (총예산의 10.5%)
	- 경제특구(SEZ) 개발	
	- 디지털 경제·사회 발전	
	- 에너지 안보 개발	
	- 소프트파워 산업 육성	
	- 중소기업 강화	
	- 미래산업 및 서비스 개발	
- 관광 수입 창출		

표 III-3 의 계속

(단위: 백만태국바트, %)

국가전략	전략별 세부 사업	2026 회계연도
국가전략 2: 국가경쟁력 제고	목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촉진 및 국가경쟁력 강화	394,611.6 (총예산의 10.5%)
	- 동부경제회랑(EEC) 개발	
	- 스마트시티 및 살기 좋은 도시 조성	
	- 혁신 및 연구개발 촉진	
	- 농업 부가가치화	
	- 교통, 물류시스템 개선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핵심·지원 사업	
국가전략 3: 인적자본 개발 및 역량 강화	목표: 지식과 덕성을 갖춘 국민 양성과 삶의 질 향상	605,927.3 (총예산의 16%)
	- 가치관 및 문화 육성	
	- 스포츠 역량 강화	
	- 신체·정신적 건강 증진	
	- 교육·학습 및 평생교육 개선	
	- 인적자원 개발 관련 핵심·보조 산업	
국가전략 4: 불평등 완화 및 사회적 형평성 증진	목표: 기본 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며 다차원적인 불평등 완화	942,709.2 (총예산의 24.9%)
	- 토지 및 토양 자원 관리, 지역경제(grassroot) 강화	
	-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 및 고령사회 대책	
	- 통합 지방 및 클러스터 개발	
	- 교육 및 사회적 평등 증진	
	- 지방행정기관(LAO)으로의 권한 이양	
	- 사회보호 및 지역사회 역량강화	
	- 사회적 형평성 관련 핵심·지원 사업	
국가전략 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친환경 성장	목표: 녹색경제 및 블루이코노미 기반의 지속가능한 성장 실현	147,216.9 (총예산의 3.9%)
	- 오염 및 환경관리 강화	
	- 기후변화 영향 완화	
	- 지속가능한 성장과 자연자원 보호	
	- 수자원 관리 및 효율성 제고	
	- 환경 관련 핵심·지원 사업	
국가전략 6: 공공행정 균형 및 강화	목표: 공공서비스의 역량 강화, 디지털 전환 촉진, 부패 방지	605,441.6 (총예산의 16%)
	- 부패방지 및 위법행위 예방	
	- 디지털 정부 혁신 가속	
	- 법제 및 사법체계 개선	

표 Ⅲ-3 의 계속

(단위: 백만태국바트, %)

국가전략	전략별 세부 사업	2026 회계연도
국가전략 6: 공공행정 균형 및 강화	목표: 공공서비스의 역량 강화, 디지털 전환 촉진, 부패 방지	605,441.6 (총예산의 16%)
	- 공공서비스 품질 및 효율 개선	
	- 행정 균형 유지 및 공공행정 지원	
	- 인사관리 관련핵심·지원 사업	

자료: 태국 예산국, Statement of the annual budget for fiscal year 2026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정부 운영지출) 아울러 태국 정부는 2026회계연도 예산안에 6,693.7억바트(전체 예산의 17.7%)를 정부 운영 관련 지출 항목에 편성함. 이 항목은 국가 차원의 재정안정성과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관리성 지출로 구성됨

-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한 관리계획에는 1,239.6억바트를 배정하여 재해 복구, 긴급 국정과제 수행, 공공 건설비 보전, 경제 회복조치 등에 활용함
- 정부부채 관리 목적으로는 4,218.6억바트를 편성하여 채무상환 및 이자지출 등을 통해 경제 안정성 확보를 도모함
- 국고 보전 지출에는 1,235.4억바트를 책정하여 「국고법」에 근거한 선지출된 국고 자금의 환입 용도로 사용될 예정임

표 Ⅲ-4 태국 2026회계연도 정부 운영 관련 지출 세부내역

(단위: 백만태국바트, %)

항목	내용	예산액	총예산 비중
긴급 상황 대응	- 자연재해, 경제위기, 긴급 국가사업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 재정건전성 원칙에 따라 집행	129,96 0.0	3.4 %
정부부채 관리	- 경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채 등 정부가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	421,86 4.4	11.1 %
국고준비금 상환	- 국고준비금법(Treasury Reserve Act, B.E.2491 (1948)) 및 개정조항에 따라 과거 집행된 지출금에 대한 상환금	123,54 1.1	3.2 %
총계		669,36 5.5	17.7 %

자료: 태국 예산국, 「회계연도 2026년 태국 예산 브리프」, <https://www.bb.go.th/en/topic3.php?gid=709&mid=456>, 검색일자: 2025. 6. 5.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2 | 브루나이

### 가. 2025~2026년 예산기조

- (예산안) 브루나이의 2025~2026년 전체 정부예산은 총 63.5억브루나이달러로 책정되었으며 “다 함께 더불어 번영하는 미래 구축(United in Building a More Prosperous Future)”을 표어로 삼음<sup>66)</sup>
  - 브루나이의 2025~2026년 예산기조 및 중점투자 방향은 2024~2025년과 동일함
  - 브루나이의 총 정부수입은 32.6억브루나이달러이며, 이 중 75%가 석유·가스 산업으로부터 비롯됨
  - 예상 정부지출 총액은 63.5억브루나이달러로, 약 31억브루나이달러 수준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나. 중점 투자방향

- (중점 분야) 브루나이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① 복지 및 생산성 증진 ② 지속가능한 경제다각화 ③ 인적자본개발을 우선순위로 지정하고 해당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 복지 및 생산성 증진
  - (인프라) 올해 역시 전력, 수자원, 도로, 통신망 등에 대대적으로 투자할 예정
    - Berakas 전력회사(BPC)의 복합화력 발전소(Combined Cycle Gas Turbine Power Plant) 건축 사업에 약 4억 2천만브루나이달러가 투입될 예정
  - (디지털 전환) 통신망 개선, 스마트 디지털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1.5억브루나이달러가 배정되었음

<sup>66)</sup>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2025), p. 32.

- 통합스마트시스템(USMS)이 12월 24일부터 도입되어 전력 및 수자원 사용량 실시간 모니터링, 온라인 결제, 디지털 고지서 관리 등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짐
- (보건) 보건 및 헬스케어에는 약 4.3억브루나이달러가 배정되어 브루나이 국민들의 사회의료보험, 의료자원, 의료 전문가 고용 등에 투입될 예정임

□ (지속가능한 경제 다각화) 브루나이는 비석유 부문의 성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다각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MSME) 브루나이 경제개발위원회(BEDB)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시행 중
  - 국내 우수 기업 선정 및 시상
  - 멘토, 재무관리 및 디지털 마케팅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운영
- (외국인투자) 특별경제구역(SEZ)을 개발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 도모
- (디지털) AI 데이터 센터 설립뿐만 아니라 자산관리공사를 중심으로 디지털 플랫폼인 국가 디지털 결제 네트워크(NDPX)를 설립하는 등 「디지털 경제 마스터플랜 2025」를 추진 중임
  - NDPX는 「디지털 경제 마스터플랜 2025」의 핵심 사업으로 소비자의 디지털 결제를 가능케 하여 기업들의 e-커머스 사업 활성화를 지원함
- (석유·가스) 브루나이의 다운스트림<sup>67)</sup> 영역도 올해 활발하게 개발할 예정
  - 브루나이 최대 석유화학 생산단지인 Hengyi 산업의 생산량 제고를 위해 추가 생산시설 설치 예정
  - 외국기업인 'Liva 석유화학'과 함께 Polygel 중간체 유한회사(Polygel Intermediate Sdn Bhd)를 설립하여 아세트산<sup>68)</sup> 및 아닐린<sup>69)</sup> 생산시설을 2027년까지 조성할 계획임
- (관광업) 관광업 개발을 위해 친환경 및 문화관광 전략 추진

□ (인적자본개발) 브루나이는 미래지향적이고 고숙련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인적자본개발 영역에 집중투자할 계획

- 공공기관 견습 프로그램(SkiPPA), 기술·직업교육(TVET), 회계 및 ICT 분야 전문자격과정, 민간기업과 연계한 장학 및 현장실습 등으로 실무 경험 및 취업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
- Hengyi 산업은 브루나이 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학금을 받은 941명 중 530명이 이미 고용됨

67) 다운스트림(downstream) 영역: 화학연료 관련 산업에서 원유 정제, 가공, 유통 및 판매 영역 등을 지칭함.

68) 접착제, 도료, 코팅제, 용제, 페트병, 폴리에스터 섬유에 활용됨.

69) 폴리우레탄 폼, 아조염료, 농약, 고무제품 생산 등에 활용됨.

표 III-5 브루나이 2025~2026년 주요 예산항목

(단위: 백만브루나이달러)

항목	소항목	내용	예산액	총 예산 비중
복지 및 생산성 증진	발전소	복합화력 발전소 건축	419	6.6%
	인프라	기존 전력, 수자원, 도로망 유지	153	2.4%
	IT 네트워크	통신망 개선 및 디지털 시스템 구축	146.5	2.3%
	보건	보건 및 헬스케어	452	6.7%
			.	
지속가능한 경제다각화 <sup>1)</sup>	MSME	중소기업 육성	-	-
	FDI	특별경제구역 개발	-	-
	디지털	디지털 전환	-	-
	다운스트림	생산 인프라 추가 조성	-	-
			.	
인적자본 개발	교육	현재 교육체계 유지	221	3.5%
		TVET 프로그램	19	0.3%
			.	

주: 1) 지속가능한 경제다각화의 경우 원문에서 상세 예산에 대해 기재하지 않음  
 자료: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2025)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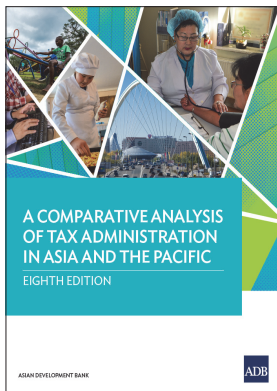
# IV

## 국제기구 연구동향

1. 아시아 지역 대상 국제기구 발간물
2. 아시아 국가 대상 국제기구 발간물

# 1 | 아시아 지역 대상 국제기구 발간물

## 1) A Comparative Analysis of Tax Administration in Asia and the Pacific(ADB)



### □ 주요 내용

아시아 지역 조세행정 데이터 비교분석을 종합한 본 보고서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38개국의 조세 행정, 조직 구조, 디지털화 수준, 징수 효율성 등을 다각도로 비교함

- (조세 수입) 조세 수입의 GDP 대비 비중은 고소득국가의 경우 20% 이상, 중하위 소득 국가의 경우 5~15% 수준으로 간극이 존재
- (법과 제도) 조세 담당 기관은 대부분 재무부 산하 혹은 준독립기관으로 활동
- (납세자) 아태지역 국가들은 대부분 중앙정부가 납세자 등록 데이터를 관리하며 이를 디지털화하기 위해 노력함
  - 신고 및 납부의 디지털화는 어느정도 이루어졌으나, 최근 호주,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등 고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모바일 앱, 챗봇, 웹 포털 등의 플랫폼 제공이 추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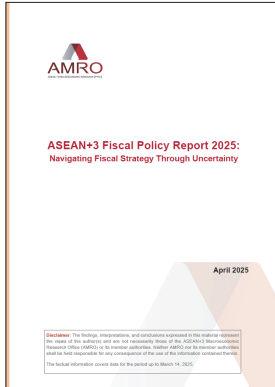
### □ 시사점

- 납세자 중심의 조세행정을 위해 디지털화를 가속화하여 납세편의 및 세수 확대를 추진해야 함
  - 전자신고 및 납부를 뛰어넘어 납세자 데이터 매칭, AI 기술 활용 등의 고도화는 일부 국가에만 국한되어 있어 확장 필요
- 조세 데이터 역량을 제고하여 조세 관련 리스크를 조기에 식별하고 재정을 국가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해야 함
- 조세 기구에 대한 인사관리 전략 수립, 전문성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함

### | 원문 |

Asian Development Bank, *A Comparative Analysis of Tax Administr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 Eighth Edition*, 2025a.  
☞ <http://dx.doi.org/10.22617/TCS240621-2>

## 2) ASEAN+3 Fiscal Policy Report 2025(AMRO)



### □ 주요내용

AMRO는 최근 ASEAN+3 국가의 공공재정건전성 및 트렌드를 진단하고 정책적인 제언점을 제시함

- (재정건전성) 대부분의 ASEAN+3 국가들은 팬데믹 이후 재정건전성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성장 불균형 및 거시경제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재정 여력 확보 및 경제회복 간 균형을 찾기가 어려움
- (중장기 전망) 고령화 및 기후변화로 인해 지출이 점점 증가하면서 중장기적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음
- (주요 과제) 친환경, 디지털 전환, 그리고 반도체 및 인공지능에 대한 집중 개발이 향후 중요한 과제로 손꼽히며 집중적인 투자 및 개발이 필요할 것

###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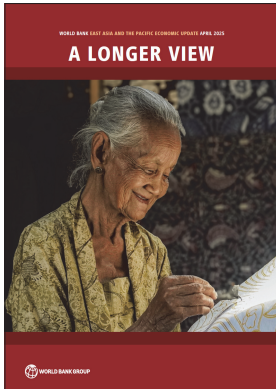
- 각 국가의 정부는 재정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외부의 충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함
- 조세수입 강화책과 더불어 지출효율화를 동시에 진행하여 주요 중장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향후 고령화, 기후변화, 거시경제 충격에 대비한 구조개혁은 필수적임
  - 지출구조 재조정 및 성과 기반 예산제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함
- 국가들은 디지털 경제에도 부합하는 과세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납세자 데이터 통합, 전산화된 신고 및 납부 시스템, AI를 활용한 분석 도구 등으로 세입 기반의 공고화 및 행정 투명성 제고가 가능함

### | 원문 |

AMRO, *ASEAN+3 Fiscal Policy Report 2025: Navigating Fiscal Strategy Through Uncertainty*, 2025.

☞ <https://amro-asia.org/asean3-fiscal-policy-report-2025/>

### 3) East Asia and the Pacific Economic Update April 2025(World Bank)



#### □ 주요내용

해당 세계은행 보고서는 아태지역의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을 다루며 글로벌 무역 약화, 고금리,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의 환경 속에서의 성장 동력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함

- (성장) 아태지역의 성장률은 글로벌 수요 약화 및 정책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2023년 5.1%에서 2024년 4.6%로 둔화되었음
  - 수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가 성장의 주요 원천으로 작용함
- (중국) 중국은 현재 부동산 시장 부진, 생산성 저하,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성장률 둔화가 전망됨
- 대부분 아태지역 국가들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완충 여력이 감소한 상황에 있으며 이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폭됨

####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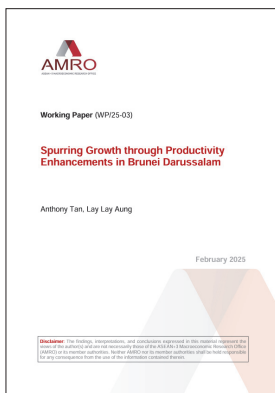
- 정부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책보다는 생산성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
- 정책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여 예측 가능한 정책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민간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음
- 교육, 보건, 사회복지 등에 대한 지출 효율성을 강화하여 형평성 및 회복력 강화를 도모해야 함
- 기후변화가 향후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성장 전략은 기후 리스크 완화와 같이 연계되어야 함
- 무역 공급망, 금융 안정, 디지털 전환 등 주요 영역 등에서 국가 간 협력과 정책 조율이 필요함

#### | 원문 |

The World Bank, *East Asia and the Pacific Economic Update – April 2025*, 2025a.  
☞ <https://hdl.handle.net/10986/42887>

## 2 | 아시아 국가 대상 국제기구 발간물

### 1) 브루나이 <Spurring Growth through Productivity Enhancements in Brunei Darussalam>



#### □ 주요 내용

브루나이는 자원 부국으로 석유·가스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비석유 부문의 혁신이 이후의 성장 핵심 동력으로 지목됨

- (TFP) 총요소생산성 분석 결과 2015~2019년에는 노동·자본 투입량은 증가했으나, 총요소생산성은 감소하여 전반적인 성장 둔화가 있었음을 시사함
  - 팬데믹 이후에는 디지털 및 자동화를 통해 비석유 부문을 중심으로 총요소생산성을 회복하였음
- (문제점) 브루나이의 경제구조 특성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됨
  - 공공부문의 비대성, 임금 왜곡, 여성의 노동참여 부족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존재
  - 산업 수요 대비 기술 인력이 부족하여 인력 공급의 미스매치가 존재
  - 공공부문 대비 민간부문,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 및 혁신 역량이 부족함

#### □ 시사점

지적된 부문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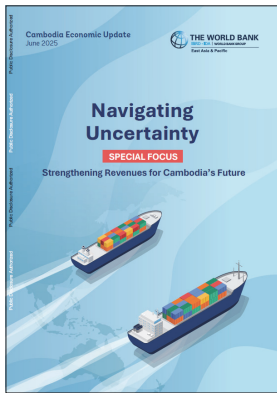
- 성과기반 임금체계 도입, 여성참여 확대 등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요함
- 중소기업 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의 성장이 필요함
- 산업 수요 기반 훈련을 강화하고, 직업교육(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VET) 프로그램 개발, 인턴십 및 현장 실습 활성화가 필요함

#### ┃ 원문 ┃

Tan, Anthony and Lay Lay Aung, *Spurring Growth through Productivity Enhancements in Brunei Darussalam*, AMRO, 2025.  
 URL: <https://amro-asia.org/spurring-growth-through-productivity-enhancements-in-brunei-darussalam>

## 2) 캄보디아 <Cambodia Economic Update: Navigating Uncertainty – Special Focus: Strengthening Revenues for Cambodia’s Future>

### □ 주요 내용



2025년 캄보디아 경제는 중요한 전환점에 처해 있으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팬데믹 이후 불균형적인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세수 확보와 지출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국내 자원동원 제고가 필요함

- 캄보디아는 정부수입과 정부지출 둘 다 전년 대비 낮게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정부의 지출 효율화 및 재정 규율 개선 노력을 반영함
- 정부수입 징수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 예산은 차입한도를 2024년 「예산법」에서 허용된 17억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sup>70)</sup>에서 20억으로 인상하였음

### □ 시사점

캄보디아는 국내 자원동원을 향상시키고 고소득 국가로 발전한다는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향후 장기적으로 세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함

- 현재 캄보디아의 재정 시스템 모델에 따르면, 보조금과 소비에 대한 간접세의 순이전(Net transfer)<sup>71)</sup>은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빈곤을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직접세의 역할을 확대하고 간접세 개혁을 통해 개발 및 지출 수요를 충족시켜야 함
- 비공식 경제의 규모를 감소시키기 위해 개인소득세의 개선이 필요함
- 국내 세수 확보를 강화하고 세무행정의 복잡성을 줄이기위해 법인세 체계를 강화해야 함

### Ⅰ 원문 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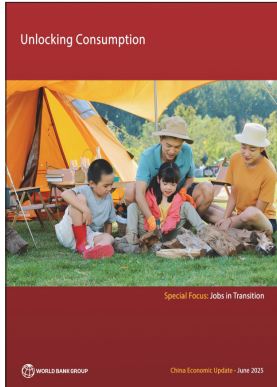
Ly Sodeth and Valley Ildrim., Cambodia Economic Update : Navigating Uncertainty – Strengthening Revenues for Cambodia’s Future. Washington, The World Bank.

☞ <http://documents.worldbank.org/curated/en/099060925065018354>

70)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은 각국의 외환 보유액을 보완하는 독립적인 화폐 단위로서 국제적 준비자산 역할을 함.

71) 순이전(Net Transfer)이란 정부가 가계로부터 걷어들인 돈(세금)과 정부가 가계에 지급한 돈(보조금, 지원금 등)을 비교하여 순수하게 어느 쪽으로 돈이 이동했는지를 보여주는 금액임

### 3) 중국 <Unlocking Consumption to Sustain Growth in China – World Bank Economic Update>



#### □ 주요 내용

중국은 국내 및 외부 경제 역풍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GDP의 약 1.6%에 해당하는 경기부양책을 계획하였음

- 이번 경기부양책은 대부분 공공투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규모 중 GDP의 0.5%에 해당하는 일부만이 소비자 보조금과 확대된 사회복지 혜택을 통해 가계에 지원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가계 소비의 지속 가능한 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정책적 보완이 요구됨

#### □ 시사점

중국은 이러한 불균형적 재정지출을 해결하기 위해 지출의 방향을 사회 보호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세금 체계 개혁, 지방정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세수 원천 창출 등을 정책 목표로 설정해야 함

- 재정자원을 의료 및 사회 보호 분야로 재분배하여 보장 범위를 확대하면 예방적 저축을 줄여 가계가 더 많이 소비하도록 장려할 수 있음
-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소득세와 경상적 재산세(Recurrent Property Taxes)를 지방세로 신설하고, 부가가치세나 법인소득세 같은 공유세원에 대해 지방정부가 일정한 과세 재량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세입 창출 능력을 강화해야 함
- 재정정책을 단순한 경기부양 차원을 넘어 주택 구매력 같은 구체적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해야 함
  - 저소득층과 농촌 이주민을 대상으로 임대주택과 공공주택 지원을 확대하면 수요를 진작시키는 동시에 사회적 목표도 달성할 수 있으며, 재정이전이나 보조금을 통해 주거비 부담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음

#### I 원문 I

The World Bank, "Unlocking Consumption to Sustain Growth in China – World Bank Economic Update," 2025h.

☞ <https://www.worldbank.org/en/news/press-release/2025/06/13/unlocking-consumption-to-sustain-growth-in-china-world-bank-economic-update>

## 4) 인도네시아 <AMRO Annual Consultation Report, Indonesia - 2025>



### □ 주요 내용

인도네시아의 거시경제 상황, 정책 대응, 구조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로, 2024년 실적과 2025년 전망을 기반으로 평가를 수행함

- 인도네시아는 경제 회복 국면을 이어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과 중장기 구조개혁 과제에 직면하고 있음
- 현재 인도네시아는 5.0% 내외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물가와 환율이 안정된 가운데 완화적 통화정책이 유지되고 있음
- 사회 및 복지 지출 확대로 재정정책은 확장 기조를 보이며 이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가 예상되는바, 세입 기반 확대를 위해 부가가치세 인상, 조세행정 개혁 등이 추진되고 있음

### □ 시사점

이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경제의 회복세와 산업정책의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들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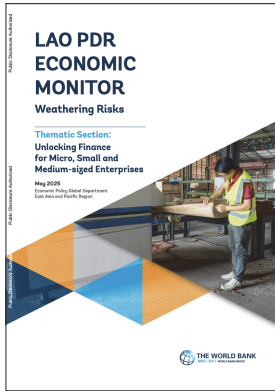
- 확장적 재정과 온건한 통화정책의 병행이 필요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 확보와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함
-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포용적 성장을 위해 중앙-지방 간 협력 구조 및 성과기반 예산배분 방식의 실효성 제고가 요구됨
-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지정학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외환정책, 무역전략, 국내산업 보호조치가 전략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음

### ! 원문 !

Fujii, Akifumi, Ginanjar Wibowo, Kittiya Manivong, Nguyen Thi Kim Cuc, Sumio Ishikawa, Thai Yangsingkham, Trung Thanh Vu, Wanwisa May Vorrarikulkij, *AMRO's 2025 Annual Consultation Report on Indonesia*, AMRO, 2025.

<https://amro-asia.org/amros-2025-annual-consultation-report-on-indonesia>

## 5) 라오스 <Lao PDR Economic Monitor – Weathering Risks: Thematic Section – Unlocking Finance for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 □ 주요 내용

라오스는 2024년 재정 수입 증대와 안정적인 통화정책에 힘입어 재정건전성 회복에 진전을 보였으나 높은 공공부채 부담이 성장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한편 중소기업은 라오스 경제 핵심의 축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2024년 공공부채 비율이 GDP 대비 약 99%에 달해 재정부담 완화와 지출 효율화가 요구됨
- 중소기업은 금융 지원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책적 지원과 금융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임

### □ 시사점

정부는 재정건전성 회복과 공공부채 관리를 위해 지출 효율화 및 세입 기반 확충에 집중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함

- 이를 위해 은행의 자산건전성 강화, 외환 의존도 축소 등의 정책이 병행되어야 하며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개선을 위한 소액금융 지원과 신용 인프라 확충도 필수적임

### | 원문 |

The World Bank, *Lao PDR Economic Monitor – Weathering Risks: Thematic Section – Unlocking Finance for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2025b.*

☞ <http://documents.worldbank.org/curated/en/099052225232036650>

## 6) 말레이시아 <Malaysia Economic Monitor: Farming the Future: Harvesting Malaysia's Agricultural Resilience through Digital Technologies>



### □ 주요 내용

말레이시아는 고소득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농업을 포함한 주요 산업의 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 농업 기술(Digital Agriculture Technologies, DAT)을 중심으로 농업의 생산성과 회복력을 높이려는 정책 기초를 보이고 있음

- 농업 부문은 GDP의 11.6%와 전체 고용의 약 10%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으로 경쟁력 강화와 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디지털 농업 기술은 시장 접근성 제약과 정보 비대칭 문제를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과 청년층 중심의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음
- ▲ 기술 발전을 위한 공공재 투자 ▲ 민간 주도의 혁신 생태계 조성 ▲ 데이터 기반 제도 정비 등 세 가지 방향이 중점적으로 제시됨

### □ 시사점

농업의 디지털 전환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농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재정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음

-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성과 기반 보조금, 세제 혜택 등 유인 구조 마련의 중요성이 부각됨
- 기술 수용성과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정부 부처 간 협업과 정책 소통의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함

### | 원문 |

The World Bank, *Malaysia Economic Monitor: Farming the Future: Harvesting Malaysia's Agricultural Resilience through Digital Technologies*, 2024b.

☞ <http://documents.worldbank.org/curated/en/099100924041013169>

## 7) 몽골 <Agenda for Action: Key Policy Recommendations for Mongolia's Sustainable Development Vision>



### □ 주요 내용

몽골은 광업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로 거시경제의 불안전성 및 녹색전환에 대해 취약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적 및 재정개혁이 절실하여 국가 핵심 사업 다각화에 나서야 함

- 광물 수출의 호황으로 몽골의 거시 재정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여러 대내외적인 충격으로 재정이 취약한 상태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조 개혁이 필요한 실정임
- 아울러 국가 산업을 다각화하는 전략을 펼쳐야 하며 세계적인 저탄소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범정부적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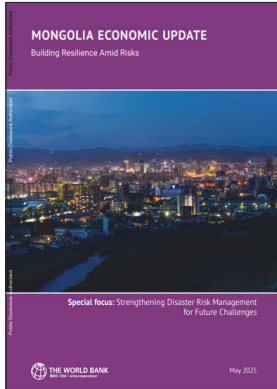
### □ 시사점

- 사회보장 지출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조정하고 에너지·농업·연금 보조금을 개혁하는 한편, 공기업 우발채무 위험을 관리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을 제고해야 함
- 몽골의 중기재정계획과 연계된 중기적인 통합형 공공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간 재정규율을 강화하여 거버넌스 및 제도를 개선해야 함
- 교육 기관 등에 성과 기반 재정지원 확대, 보건 분야 지원 강화 및 사회보장 시스템 개선을 통한 효율성을 강화함
- 농업 생산성, 경쟁력 및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해 농업 분야 우대 정책을 제공하고 조세제도를 개혁을 실시해야 함

### | 원문 |

The World Bank, *Agenda for Action: Key Policy Recommendations for Mongolia's Sustainable Development Vision*, 2024a.  
<http://documents.worldbank.org/curated/en/099081324043535131>

## 〈Mongolia Economic Update: Building Resilience Amid Risks〉



### □ 주요 내용

2024년 몽골 재정은 광물 생산 및 세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수지 흑자 규모가 감소함

- 광물 생산량 증가와 구리 가격 인상으로 재정수입이 증가했으나 연금 및 공공부문의 급여 인상, 자본 지출의 증가 등으로 정부지출 역시 큰 폭으로 확대됨
- 또한 2025년 1분기 GDP는 원자재 수출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 2.5%에서 -0.1%로 하락함
- 지난 몇 년 간 반복된 재난(조드,<sup>72</sup> 가뭄 등)은 몽골 농업에 큰 타격을 주었으나 최근 농업이 회복함에 따라 2026~2027년 경제 성장률은 연 평균 5.2%가 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해외 원자재 가격 약세가 지속되는 등 대외 및 재정 불균형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임

### □ 시사점

몽골은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사회보호 지출 증가를 완화하고 준재정 활동인 보조금 모기지 프로그램 등을 억제하며 재정준칙을 강화하는 등 재정 완충 여력을 확보해야 함
- 몽골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국가로, 재난관리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 제도, 정책적 체계를 마련해야 함

### | 원문 |

The World Bank, *Mongolia Economic Update: Building Resilience Amid Risks*, 2025c.  
☞ <https://hdl.handle.net/10986/43294>

72) 조드(зүд): 몽골 및 중앙아시아 스텝 지역에서 발생하는 한파 재난을 일컫음.

## 8) 필리핀 <Philippines Economic Update: Small Business, Big Impact – Catalyzing Philippine Growth>



### □ 주요내용

2025년 1분기 필리핀 경제는 글로벌 불확실성과 수출 부진 속에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낮은 물가와 고용 회복, 정부지출 확대에 힘입어 내수는 견조하게 유지되었음

- 물가상승률은 1.9%로 안정되며 통화완화가 재개되었고, 금융 부문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그레이 리스트 해제를 통해 안정성을 강화함
- 그러나 2025년 상반기에 실시된 필리핀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전 지출이 확대되면서, 2025년 1분기 기준 재정적자는 GDP의 7.3%까지 증가하였고, 해당 분기 공공부채도 GDP 대비 62%까지 상승함

- 경상수지 및 국제수지는 수입 증가와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둔화로 악화됨
- 또한 중소기업의 저조한 수출 및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율은 생산성과 성장 잠재력 제약 요인으로 지적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지원 필요성이 강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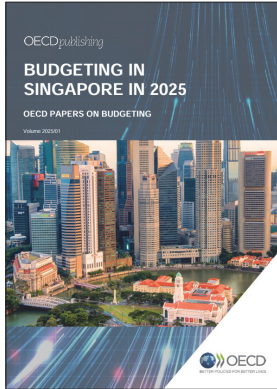
□ (시사점) 필리핀은 글로벌 불확실성과 재정 제약 속에서도 견조한 내수와 통화 여력을 바탕으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조세개혁을 통한 재정건전성 회복과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이 시급함

- 따라서 중기적으로는 통화여력은 있으나 재정여력은 제한적인 만큼, 신속한 재정개혁과 세수 확대, 비효율적 조세지출의 단계적 축소를 통해 재정 버퍼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이 중요함

### | 원문 |

The World Bank, *Philippines Economic Update: Small Business, Big Impact – Catalyzing Philippine Growth*, June 2025d.  
 ☞ <https://hdl.handle.net/10986/43395>

## 9) 싱가포르 <Budgeting in Singapore in 2025>



### □ 주요 내용

OECD가 2025년 1월에 발간한 보고서로 재무부의 협조하에 싱가포르 예산제도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음

- (지속가능한 재정) 「헌법」에 따라 싱가포르의 정부는 임기 내 균형재정을 유지해야 하며, 운영지출을 위한 차입은 금지됨
  - (NIR)<sup>73)</sup> 싱가포르의 국부펀드 및 외환보유액 운용을 통해 얻는 장기 실질 수입의 최대 50%를 예산에 사용 가능함
  - (SINGA)<sup>74)</sup> 다만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한해서는 차입이 가능함
- (효율성) 싱가포르는 각 부처마다 5년 단위의 예산한도를 설정하여 지출 계획의 예측 가능성과 자율성을 보장
- (투명성) 기존의 예산보고서뿐만 아니라 온라인 콘텐츠, 다국어 커뮤니케이션 등을 활용하여 디지털 예산 소통 전략을 도입함
  - 중기재정전망은 투명성 부문에서 개선 여지가 있으나, 2023년부터는 2030년까지의 중기재정전망을 발표하며 점진적으로 제고 중

### □ 시사점

- 싱가포르는 「헌법」에 기초한 재정준칙, NIR, SINGA 등을 통해 공공재정의 제도적 안정성 및 유연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음
- 고령화 및 완만한 성장이라는 구조적 도전과제에도 불구하고, 재정에 대한 규율 및 공공부문 혁신을 통한 장기 재정지속가능성 확보 전략은 타 정부들이 참고할 만함
- 다만 중기재정전망 및 거시경제전망 부분은 좀 더 투명성 제고가 필요함

#### | 원문 |

OECD, *Budgeting in Singapore in 2025*, 2025.

☞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budgeting-in-singapore-in-2025\\_79ec8b00-en.html](https://www.oecd.org/en/publications/budgeting-in-singapore-in-2025_79ec8b00-en.html)

73) Net Investment Returns Framework

74) Significant Infrastructure Government Loan Act

## 10) 태국 <Thailand Economic Monitor February 2025: Unleashing Growth – Innovation, SMEs, and Startups>



### □ 주요 내용

2025년 태국 수출은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시장의 성장 둔화로 다소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가운데 재정 회복력 강화를 위해 표적형 사회보장, 세수 확충, 인프라 및 인적 자본 투자 확대가 요구됨
- 또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로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한 세밀한 대응이 중요함
- 아울러 장기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 전반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며 정책 개혁이 지연되면 태국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함

### □ 시사점

태국이 중장기적으로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양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 부문, 특히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구조개혁이 병행되어야 함

- 특히 중소기업(SMEs)은 태국 경제의 99.5%를 구성하고, 고용과 GDP 기여도도 높지만 혁신 역량이 낮고 글로벌가치사슬(GVC)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집중이 요구됨
- 기술 도입, 연구개발, 인재 양성, 금융 접근성 제고, 공정한 규제 환경 조성 등이 태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조건으로 제시되며, 이를 위해 정부 부처 간 협업과 민간의 혁신 역량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이러한 맥락에서 이 보고서는 민간이 기술 인재 양성에 기여한 사례로 한국 삼성전자의 SSIFY (Samsung Software Academy for Youth) 프로그램을 소개함
    - 이는 민간이 청년 기술인재 육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국가의 혁신 역량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태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 | 원문 |

The World Bank, *Thailand Economic Monitor February 2025: Unleashing Growth – Innovation, SMEs and Startups*, 2025e.  
 ☞ <https://www.worldbank.org/en/country/thailand/publication/thailand-economic-monitor-february-2025-unleashing-growth-innovation-smes-and-startups>

## <Thailand Economic Monitor, Digital Pathways to Growth>



### □ 주요 내용

세계은행은 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2025년 2.9%에서 1.8%로, 2026년은 2.7%에서 1.7%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는 수출 부진, 관광 회복 지연, 민간 소비, 투자 약세 때문으로 민간 투자 심리 개선 시 2025년 2.2%, 2026년 1.8%로 회복 가능성이 있음<sup>75)</sup>

### □ 시사점

경기 둔화, 소비 위축, 민간 투자 정체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태국 정부는 단기적 재정 지출보다는 고품질 인프라 투자, 생산성 제고 중심의 정책으로 재정 여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고소득 국가가 되기 위해서 가계부채 구조 개선, 디지털 전환 가속화, 민간 부문 투자 유도 등 구조개혁이 필요함
- 태국은 모바일 인터넷 보급률은 높으나 고속 유선망(Fixed Broadband) 접근성과 고성능 데이터 인프라(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AI 인프라 등)가 여전히 부족하여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지연되고 있음
  - 또한 디지털 인프라 외에도 디지털 격차, 낮은 AI 활용률(2024년 3월 기준 인터넷 사용자 중 6%만 활용), 인력의 낮은 디지털 숙련도 등은 기술 기반 성장의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고, 광범위한 디지털 문해력(Literacy) 및 업스킬링(Upskilling, 현 직무의 숙련도 향상을 위해 새로운 기술 습득)이 시급함
- 전자상거래, 헬스케어, 금융 등에서의 디지털 활용 사례가 늘고 있지만 중소기업(SMEs)의 기술 도입은 여전히 낮아 이를 위한 플랫폼 접근성, 디지털 역량 개선이 필요함
- 아울러 디지털 전환을 통한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과 사회 포용성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 태국 정부는 관련 규제 정비, 데이터 활용 촉진, AI 도입 확대, 사이버 보안 확대 등이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언함

### | 원문 |

The World Bank, *Thailand Economic Monitor July 2025: Digital Pathways to Growth*, 2025e.

☞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entities/publication/982e03f5-79ab-4b81-857a-4820f3c4eef7>

75) 2025년 2월에 발간된 *Thailand Economic Monitor February 2025: Unleashing Growth - Innovation, SMEs and Startups* 보고서에서는 2025년 태국 경제성장률을 2.9%로 전망한 바 있음.

## 11) 동티모르 <Timor-Leste Economic Report, From Resources to Results: Transforming Public Spending to High Growth>



### □ 주요 내용

동티모르는 석유·가스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하고 다각화된 경제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 중임. 특히 석유기금(Petroleum Fund, PF)의 고갈이 2035년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건전성 및 공공지출의 효율성이 핵심과제로 떠오름

- 동티모르의 정부지출은 높은 편이나 성장률, 빈곤감소, 교육, 보건 지표 모두 부진한 편으로 평가됨
- 국가예산 실행률이 2023년 78.5%로 회복되었으나 개발예산 집행은 72%에 머무르고 있음

###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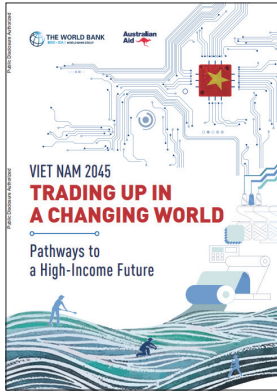
동티모르의 지속가능한 공공재정 기반을 위해서는 자원확충, 지출효율화, 전략적 집중투자가 필요함

- 동티모르는 풍부한 석유·가스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통한 경제성장, 고용창출, 인적자본 강화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
- 석유자원 고갈이 10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현재 동티모르 공공재정 개혁은 필수적임

### | 원문 |

The World Bank, *Timor-Leste Economic Report: From Resources to Results: Transforming Public Spending to High Growth*, 2025g.  
<https://hdl.handle.net/10986/42806>

## 12) 베트남 <Vietnam 2045–Trading up in a Changing World: Pathways to a high-Income Future>



### □ 주요 내용

베트남이 2045년까지 고소득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노동집약적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기술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베트남은 디지털 무역 및 서비스 무역 확장과 FTA 등 무역협정 활용도 제고,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 등 무역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성장 전략을 재구성해야 함
- 베트남 국내 기업의 저조한 글로벌 가치사슬(GVC) 편입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 이전 촉진 및 금융 접근성을 완화하고 베트남 국내 기업의 역량을 제고해야 함
- 서비스 무역 장벽 완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저임금 기반의 단순 조립형 산업구조를 첨단 산업과 서비스 분야로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함
- 첨단 산업의 근간인 숙련 노동력 양성을 위해 고급 인재 양성과 교육 혁신을 목표로 인적 자본의 질을 향상시켜야 함
-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저탄소 생산체제로의 전환 및 친환경 산업 유인 전략이 필요함

### □ 시사점

베트남이 과거의 노동집약적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중심의 생산과 무역, 탄소중립 전환, 인적자본 강화, 제도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를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 원문 |

The World Bank, *Vietnam 2045–Trading up in a Changing World: Pathways to a high-Income Future*, 2024c.  
<https://documents1.worldbank.org/curated/en/099111424204523679/pdf/P1787841e077190d919b24181b4dcb14765.pdf>

## 참고자료

### 〈국내 문헌〉

기획재정부, 「아세안+3 채권시장의 디지털 혁신 위한 첫 디지털채권시장포럼 개최」, 보도자료, 2025. 2. 10.

\_\_\_\_\_, 「아세안+3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금융안전망(CMIM) 실효성 제고 조치에 합의」, 보도자료, 2025. 5. 5.

### 〈외국 문헌〉

AMRO, “The Amended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CMIM) Comes Into Effect on 31 March 2021,” Press Release, 2021. 3. 31.

\_\_\_\_\_, *ASEAN+3 Fiscal Policy Report 2025*, 2025.

ASEAN+3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Meeting, “Joint Statement of the 28th ASEAN+3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Meeting,” Press Release, 2025. 5. 4.

Asian Development Bank, *A Comparative Analysis of Tax Administr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2025a.

\_\_\_\_\_, Asian Development Outlook April 2025, 2025b.

DBCC, “191st DBCC Joint Statement on the Review of the Medium-Term Macroeconomic Assumptions and Fiscal Program for Fiscal Years (FY) 2025 to 2028,” Press Release, June 26, 2025.

Debrun, Xavier, Andrew Hodge, Victor Duarte Lledo, Catherine A Pattillo, *Second-Generation Fiscal Rules: Balancing Simplicity, Flexibility, and Enforceability*, IMF, 2018.

Fujii, Akifumi, Ginanjar Wibowo, Kittiya Manivong, Nguyen Thi Kim Cuc, Sumio Ishikawa, Thai Yangsingkham, Trung Thanh Vu, Wanwisa May Vorrarikulkij, *AMRO’s 2025 Annual Consultation Report on Indonesia*, AMRO, 2025.

Government Procurement Policy Board,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of Republic Act No. 12009*. GPPB Resolution No. 02-2025, February 4, 2025.

IMF, Fiscal Monitor: Fiscal Policy Under Uncertainty – 2025 Apr, 2025a.

\_\_\_\_\_,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5, 2025b.

Ly Sodeth and Valley Ildrim., *Cambodia Economic Update : Navigating Uncertainty – Strengthening Revenues for Cambodia’s Future*. Washington, The World Bank.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of Cambodia,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E-Service for Business 2025–2028*, 2025.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KEMENTERIAN KEWANGAN DAN EKONOMI PEMBENTANGAN KERTAS CADANGAN RANG UNDANG-UNDANG (2025) PERBEKALAN 2025/2026 MAJLIS MESYUARAT NEGARA 2025,” In proceeding of Majlis Mesyuarat Negara, 2025.

Ministry of Finance Malaysia, *Malaysian Economy – First Quarter*, 2025.

OECD, *Budgeting in Singapore in 2025*, 2025.

Republic of the Philippines, *Republic Act No. 12009: New Government Procurement Act*, July 20, 2024.

Tan, Anthony and Lay Lay Aung, *Spurring Growth through Productivity Enhancements in Brunei Darussalam*, AMRO, 2025.

The World Bank, *Agenda for Action: Key Policy Recommendations for Mongolia’s Sustainable Development Vision*, 2024a.

\_\_\_\_\_, *Malaysia Economic Monitor: Farming the Future: Harvesting Malaysia’s Agricultural Resilience through Digital Technologies*, 2024b.

\_\_\_\_\_, *Vietnam 2045–Trading up in a Changing World: Pathways to a high-Income Future*, 2024c.

\_\_\_\_\_, *East Asia and the Pacific Economic Update – April 2025*, 2025a.

\_\_\_\_\_, *Lao PDR Economic Monitor – Weathering Risks: Thematic Section – Unlocking Finance for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2025b.

\_\_\_\_\_, *Mongolia Economic Update: Building Resilience Amid Risks*, 2025c.

\_\_\_\_\_, *Philippines Economic Update, June 2025: Small Business, Big Impact – Catalyzing Philippine Growth*, 2025d.

\_\_\_\_\_, *Thailand Economic Monitor February 2025: Unleashing Growth – Innovation, SMEs*

*and Startups, 2025e.*

\_\_\_\_\_, *Thailand Economic Monitor July 2025: Digital Pathways to Growth, 2025f.*

\_\_\_\_\_, *Timor-Leste Economic Report: From Resources to Results: Transforming Public Spending to High Growth, 2025g.*

\_\_\_\_\_, *Unlocking Consumption to Sustain Growth in China – World Bank Economic Update, 2025h.*

Wimmer A. Maria, “Once-Only Principle Good Practices in Europe.” In *The Once-Only Principle*, (eds.) Robert Krimmer, Andriana Prentza, Szymon Mamrot, Springer Cham. 2021. chapter, pp.61-82.

Wong Chrisine, “China’s 2025 Budget: Stimulus, Debt and the Reform Imperative,” East Asian Institut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89, 2025, pp. 1~12.

#### 〈데이터〉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weo-database/2025/april>, 검색일자: 2025. 6. 16.

#### 〈웹사이트〉

라오스 재무부, 「제9차 국회 정기회의 질의답변」, [https://www.mof.gov.la/news\\_detail/198](https://www.mof.gov.la/news_detail/198), 검색일자: 2025. 7. 3.

베트남 재무부, 「조직도」, [https://mof.gov.vn/webcenter/portal/btcvn/pages\\_r/m/gioi-thieu-bo/tchcbmy](https://mof.gov.vn/webcenter/portal/btcvn/pages_r/m/gioi-thieu-bo/tchcbmy), 검색일자: 2025. 5. 15.

몽골 재무부, 「몽골 2025년 예산안 승인」, <https://www.gov.mn/mn/news/all/a92f44ac-3d01-4237-9a33-b5a56a107d09>, 검색일자: 2025. 6. 2.

몽골 정부, 「세계개편안 의회 제출」, <https://www.gov.mn/mn/news/all/3278536e-9877-40a0-ab95-f682843f61ee>, 검색일자: 2025. 6. 5.

태국 예산국, 「회계연도 2026년 태국 예산 브리프」, <https://www.bb.go.th/en/topic3.php?gid=709&mid=456>, 검색일자: 2025. 6. 5.

Bangprapa, Mongkol, “Cabinet approves B115 billion for stimulus projects,” *Bankok Post*, 2025. 6. 24.,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general/3056870/cabinet->

approves-b115-billion-for-stimulus-projects, 검색일자: 2025. 6. 26.

Chantanusornsiri, Wichit, “Finance Ministry mulls soft loans for global trade,” *Bankok Post*, 2025. 4. 24.,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general/3009971/finance-ministry-mulls-soft-loans-for-global-trade>, 검색일자: 2025. 6. 30.

*Lao News Agency*, “Finance Minister Reports Positive Economic Outlook at National Assembly Session,” <https://kpl.gov.la/En/Detail.aspx?id=91865>, 검색일자: 2025. 7. 3.

Ministry of Finance Malaysia, “Targeted Revision of Sales Tax Rate and Expansion of Service Tax Scope Effective 1 July 2025,” <https://www.mof.gov.my/portal/en/news/press-release/targeted-revision-of-sales-tax-rate-and-expansion-of-service-tax-scope-effective-1-july-2025>, 검색일자: 2025. 7. 3.

Ministry of Finance Singapore, “Budget 2025 Highlights, Celebrating SG60,” <https://www.mof.gov.sg/singaporebudget/budget-2025-highlights/celebrating-sg60>, 검색일자: 2025.06.25.

PricewaterhouseCoopers Tax TMZ, “Tax Alert – Proposed Changes to the Tax Laws,” [https://www.pwc.com/mn/en/tax\\_alerts/pdf/2025/tax\\_alert\\_2\\_2025\\_en.pdf](https://www.pwc.com/mn/en/tax_alerts/pdf/2025/tax_alert_2_2025_en.pdf), 검색일자: 2025. 7. 17.

Prime Minister’s Office Singapore, “PM Lawrence Wong at the Launch of the CDC Vouchers Scheme 2025 (May),” <https://www.pmo.gov.sg/Newsroom/PM-Lawrence-Wong-at-the-Launch-of-the-CDC-Vouchers-Scheme-2025-May>, 검색일자: 2025. 6. 25.

Reuters, “Thai cabinet approves projects worth \$3.5 bln to stimulate economy,” 2025. 6. 24.,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boards-policy-regulation/thai-cabinet-approves-projects-worth-35-bln-stimulate-economy-2025-06-24/>, 검색일자: 2025. 6. 27.

*The Nation*, “IMF warns Thailand’s public debt exceeds ASEAN average, urges prudent fiscal policy,” <https://www.nationthailand.com/business/economy/40049171>, 검색일자: 2025. 6. 27.

\_\_\_\_\_, “Thailand Approves 151 Billion Baht Economic Stimulus Package to Counter Global Volatility,” <https://www.nationthailand.com/business/economy/40051685>, 검색일자: 2025. 6. 27.

*The Saigon Times*, “Vietnam approves major administrative overhaul, streamlining local governance,” <https://english.thesaigontimes.vn/vietnam-approves-major-administrative-overhaul-streamlining-local-governance/>, 검색일자 : 2025.6.30.

- Vietnamnet Global, “Vietnam’s labor market faces pressure as 100,000 public workers exit”, <https://vietnamnet.vn/en/vietnam-s-labor-market-faces-pressure-as-100-000-public-workers-exit-2368895.html>, 검색일자 : 2025. 6. 30.
- \_\_\_\_\_, “Government streamlines Ministry of Finance, reducing bureaucracy by 37.7%”, <https://vietnamnet.vn/en/government-streamlines-ministry-of-finance-reducing-bureaucracy-by-37-7-2369655.html>, 검색일자 : 2025. 6. 30.
- Vietnam Investment Review, “MoF updates economic growth outlook for 2025 amid challenges”, <https://vir.com.vn/mof-updates-economic-growth-outlook-for-2025-amid-challenges-125995.html>, 검색일자 : 2025. 6. 30.
- Vietnam Law & Legal Forum, “Ten ministries merged into five after apparatus streamlining: Minister”, <https://vietnamlawmagazine.vn/ten-ministries-merged-into-five-after-apparatus-streamlining-minister-73433.html>, 검색일자 : 2025. 6. 30.
- Vietnam Pictorial, “Streamlining for a better future”, <https://vietnam.vnanet.vn/english/long-form/streamlining-for-a-better-future-396776.html>, 검색일자: 2025. 6. 30.

